1962.12

(동시)

한해를 돌아 보며

황 민

관모 련봉 마루턱에 누엿누엿
저무는 해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 본다.
흰 눈 내린 산과 들과 먼 바다들
바라보며 바라보며 흐뭇한 웃음 짓는다.

해는 온 누리를 어루 만진다.
붉은 해'발 뿌리며, 뿌리며……
자랑 많은 공장들과 넓은 논'벌을
일떠서는 거리들을 어루 만진다

큰 일을 하여 놓고 바라보는 맛.
땀 흘린 보람에, 자랑찬 해는
여섯 개 고지 우에 휘날리는 기'발 소리,
승리의 기'발 소리 귀 기울여 듣는다.

누엿누엿 지는 해는 귀 기울여 듣는다.
강산이 일떠서서 걸어 가는 소리,
천리마로 나래쳐 날아 가는 소리,
희망에 찬 새 해가 다가 오는 소리……

붉고 붉은 넥타이 자랑차게 날리며
더욱 크게 자라서 새 해를 기다리는
가슴 속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관모련봉 마루턱에 붉은 해는 걸터 앉아…

〈지난 해엔 우리들도 무척 자랐구나.
누구나 최우등생 보통 일로 되였고
산과 들과 바다에는 우리들의 크르쇼크
새 희망을 꽃 피운 보람찬 나날…〉

〈…공산주의 건설의 믿어운 후비대로
배운 지식 실습에서 더욱 다지며
서로 돕고 이끌어 힘을 합쳐 나가며
자랑 높은 모범 분단 우리들은 꾸렸네…〉

〈새 해에는 몸과 마음 나는 더욱 다지여
착한 일, 좋은 일 앞질러 하며
새 지식 넓혀 가며 피리도 더 잘 불어
원수님이 미소 지어 기뻐하시게……〉

다지는 내 마음을, 내 희망을
엿들으며 붉은 해는 어루 만진다.
나와 그리고 나무들과 언덕과
산과 들과 물'결 치는 먼 바다를…

아름다운 이 강산을 어루 만진다.
번영하는 우리 조국 어루 만진다.
7개년의 봉우리, 거가서 불어 오는
지상 락원 꽃향기를 나와 함께 맡으며

《소년단》 1962년 12호 내용

차 용구　　그림 리 동춘

섣달 그믐날 소년들의 모임에서는 큰 변이 났습니다.

글쎄 오늘 모임의 주인인 여섯 형제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질 않으니 이런 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여섯 형제와 상봉 좌담회를 하기 위해 모여 온 소년단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구나》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아이가 아는 체하고 말대꾸를 했습니다.

《아마 뻐스가 고장난게지…》

《뭐 뻐스가 고장 났다구?… 체! 얘 여섯 형제가 언제 뻐스 타고 다니든? 여섯 형제는 천리마를 타고 다녀! 해보다도, 달보다도 더 빠른 천리마 말이다! 뻐스 같은 게 어림 있는 줄 아니》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얘들아! 여섯 형제가 문'간에서 지체하고 있어, 아마 초대장이 없는가봐!》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초대장이 어쨌다구? 아니 오늘 접수엔 누가 앉아 있나?》

오늘 모임의 사회를 맡은 귀동이가 성이 나서 웨쳤습니다.

《복남이가 접수 책임자야!》

《그래! 얘들아, 가자, 가서 혼찌검을 내 주자.》

아이들은 귀동이를 따라 현관에로 내 달렸습니다.

커다란 짝문이 활짝 열린 정문에서는 복남이가 쩔쩔 매며 돌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음 대로 드나들 수 있는 현관문 밖에는 여섯 형제가 무슨 일 때문인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얘! 복남아! 너 누굴 지체시키고 있니! 썩 비껴라!》

그러자 복남이가 땀이 뻘뻘 흘러 내리는 이마를 쭉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귀동아! 뭐 내가 지체시킨다구? 눈 있으면 보렴》

여럿은 그 때에야 여섯 형제의 몸뚱이가 금년의 첫 아침에 보던 것과 비길 데 없이 몰라 보게 커졌다는 것을 알아 챘습니다.

새해 첫 날 첫 아침에 그들은 바로 이 궁전에서 여섯 형제와 상봉 모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때 여섯 형제들은 모두가 제 맡은 봉우리를 점령하고 아이들은 모두가 최우등의 봉우리에 올라 서서 섣달 그믐날 다시 모이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이 문으로 마음 대로 걸어 나갔던 여섯 형제들이 오늘은 문이 좁아 들어 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들이 우르르 달려 나오자 여섯 형제는 반갑게 인사들을 하고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손님 대접이 잘 못 돼서…사실은 잘 준비하노라 한 것이 그렇게 됐어요. 우린 글쎄 보통 때는 쓰지 않던 큰 문을 두짝이나 활짝 열어 놓지 않았나요. 우린 여섯 형님네들이 이 문이면 넉넉히 들어 올 줄 알았지요 뭐.》

귀동이가 이렇게 말하자 여섯 형제들은 허허 웃었습니다.

《됐다. 됐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모습이 몰라 보게 달라졌으니까! 자 인제는 어떻게 들어 가 보자!》

《네 잠간만 기다려 주세요. 인제 곧 문을 넓히겠어요.》

귀동이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급해 맞게 손을 입에 가져다 입나팔을 하고 큰 소리로 웨쳤습니다.

《문을 넓혀라, 여섯 형제가 밖에서 기다린다. 문을 높여라, 여섯 형제가 밖에서 기다린다.》

그 말을 들은 아동 궁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제 문을 광장만큼 넓히고 구름 우에 닿을만큼 높였습니다.

《자! 귀한 손님네들 어서 들어 오십시오!》

이렇게 돼서 여섯 형제는 상봉 모임이 준비된 넓은 방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 방은 어찌나 넓은지 맨 뒤에 앉은 아이는 만리경을 껴야 알릴 정도입니다. 그 넓은 방에 오색기와 테프를 줄줄이 늘이고 금 종이, 은 종이 장식들이 전등 불'빛에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여섯 형제들이 꽃방석을 깐 주석단에 앉자 색동 저고리를 입은 아이들이 왁 쓸어 나와 꽃묶음을 아름이 벌게 안겨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새 해 첫 아침에 약속한 대로 여섯 형제와의 상봉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처음에 김 영철이 전국 소년들을 대표해서 우리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가져다 준 여섯 형제의 공로를 찬양하여 축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끝나고 축사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영철이의 축사가 끝나자 계획에 없던 축하 연설자가 생기는 바람에 날파람 있고 일처리에 소문난 귀동이도 수습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한두 사람이 축하 연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장내에 모인 거의 전부가 축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 모내기 전으로 많은 비료를 보내 주어 정당 5～6톤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리현리에서 온 동무가 맨 처음 나선 데 뒤'이어 산'골까지 뜨락또르를 보내 줘서 고맙다는 할아버지들의 인사를 전하겠다는 아이도 있고 농촌 문화 주택에 새집들이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던 할머니 이야기를 하겠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물'고기는 그림책에서나 보던 심심 산'골에까지 펄펄 뛰는 생선을 보내 준 데 대하여 꼭 한 마디만 하겠다는 량강도 학생이 있는가 하면 난생 처음 비날론 외투를 입어 본 감상을 꼭 말하겠다는 처녀애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판인데 이번에는 여섯 형제들이 저마다 말을 했습니다.

알곡 고지는 농민들의 풍년 모임에 갈 시간이 바쁘다 하고 직물 고지는 벌써 방직 공장 누나들의 초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석탄 고지도 석탄 전사들의 모임에 갈 시간이 되였다고 하자 수산물 고지도 제 사정이 그렇다 덩달아 나섰고 주택 고지는 새집들이에 꼭 와달라는 부탁을 어길 수 없노라고 하였습니다.

형편이 이러니 잘못 하다간 고마운 여섯 형제에게 축사도 변변히 못하게 될 것이고 여섯 형제의 자랑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맡아 보는 귀동이가 이런 제안을 냈습니다.

《자, 우리의 축사와 최우등의 봉우리를 점령한 자랑일랑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신문에 내든가 방송국 마이크를 빌리든가 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여섯 형제가 7 개년 계획의 첫 3 년간의 과업 다시 말해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당의 과업 실행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자랑찬 이야기를 들읍시다.》

귀동이의 말이 끝나자 또 한참동안 좋다거니 나쁘다거니 웅성거리다가 결국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산'등성이 만한 알곡 500 만 톤 고지가 일어 서서 온 방안을 둘러 보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일기는 참 변덕쟁이였소. 봄에는 바짝 가물고 석달 장마에 네 차례나 홍수가 지고 그 다음엔 태풍이 불고 랭해와 병충해도 있었고…내 나이 이 때까지 이런 변덕스런 날씨는 처음 겪었소 옛날 같으면 이런 해에는 빈손 털고 나앉는 수 밖에 없었지.

그러나 우리는 한 손에는 수리화 다른 한 손에는 전기화와 기계화의 날개를 틀어 쥐고 당이 하라는 대로 해서 500만 톤 고지 우에 붉은 기를 꽂아 놓았소…》

알곡 고지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방안에서는 요란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알곡 고지는 이백 알도 넘는 벼 이삭 수염을 슬슬 쓰다듬고 나서 또 말을 계속 했습니다.

《봄가물이 우리를 말려 죽이려 했지만 수리화가 끝난 데다가 〈15 일 전투〉에 얼혼이 빠져 달아 났지요.

몇 십 년만에 처음 보는 대홍수가 우리를 몽땅 휩쓸고 번번한 황무지로 만들려고 했지만 치산 치수가 잘 되고 당의 부름 따라 홍수와의 싸움에 일어선 농민들과 전체 근로자들의 기세에 눌려 도망치고 말았지.

그런데 이번에는 가을 비요, 바람이요 하는 놈들이 가을 하는 틈을 타서 방해를 놓으려 했지만 20 일간의 〈추수 전투 기간〉에 제꺽 가을걷이를 해치우니 그놈들이 미처 손 쓸 사이도 없었지 허허…》

《그런데 우리 나라 논밭에서 일하는 뜨락또르는 몇 대나 되나요?》

축사를 먼저 하겠다고 다투던 한 아이가 불쑥 일어 나더니 질문했습니다.

《오냐, 내가 깜빡 잊었댔군 그래

우리 나라 농촌엔 지금 1 만 5000 대(15 마력 환산)의 뜨락또르가 달리고 있지, 게다가 파종기요, 제초기요 벼베기 기계들이 공급돼서 사람들의 일이 얼마나 헐하고 홍겹게 됐다구 그리고 수리화에 대해서 말하면 금년에 청단 관개 공사가 완공되고 수다한 관개 시설이 확장되여 관개 면적이 3 만 정보나 더 늘어났지.

우리 화학 공업이 또 얼마나 방조해줬는지 아냐. 화학 비료만 해도 작년의 113%구, 살초제와 각종 농약은 또 얼마나 많이 공급됐겠니.

그리고 뭐니 뭐니해도 500만 톤의 열쇠는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 그리고 김 일성 원수님의 발기에 의해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도 농촌 경리 위원회가 창설된 데 있지.》

알곡 고지가 무슨 말인가 더 말하려는데 직물 고지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간 형님 혼자만 말하겠어요. 이젠 그만하고 우리도 좀 이야기해 보자구요.》

직물 고지는 귀동이가 언권을 주기도 전에 일어나서 이야길 시작했습니다.

《왜정 때 조선 사람 한 사람 앞에 14 센치 메터의 천이 겨우 차례졌지요. 이걸로는 장난'감 주머니 하나 깁기도 모자라는 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억 5000만 메터의 봉우리를 점령해서 매 사람에게 25 메터의 천을 주게 됐지요. 아무튼 왜정 때 1 년에 짜던 천을 지금 우리는 단 이틀에 짠다니까요…》

이번에는 박수가 일어 났고 꽃다발들이 올라 갔습니다.

《야 참 굉장은 하구나 그 때 같으면 180년도 더 걸리던 일을 우린 한 해 동안에 제꺽 해낸단 말이구나!》

수학 박사라고 불리우는 복남이가 이렇게 웨쳤습니다.

《그렇지 그런 것은 뭐 나 뿐이 아니구 강철 고지도 주택 고지도…》

그러자 강철 고지가 불쑥일어 나서 말 했습니다.

《자, 형님은 제 자랑이나 합시다. 내 자랑은 내가 어련히 하지 않을라구요.》

그 바람에 직물 고지는 얼른 《북방의 대 섬유 기지》이며 《비단 궁전》이라고 하는 청진 화학 섬유 공장이 조업 개시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제 차례를 기다리던 수산물 고지가 연단에 나섰습니다.

《수상님은 전후에만도 수산 부문에 대한 현지 지도를 170 여 차례나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수산 부문이 발전 안 할 수가 있나요! 해방 전에는 겨우 36만 톤을 잡았는데 지금은 그 곱절을 잡고 있습니다.

사철 바다를 비우지 않고 얕은 바다에서도 잡고 깊은 바다와 먼 바다에서도 잡아냈지요. 300일 이상 출어와 1 인 100 킬로 운동을 하고 전광, 화광 어로와 같은 선진 어로 방법을 도입하고 뜨랄선, 포경선, 만능선, 기선 저예망선들이 계속 늘어 가고 비행기와 각종 탐색기로 고기떼를 찾아 내고 무선 통신 수단으로 어선들을 지휘하고…》

수산물 고지가 한창 말에 신이 났는데 누군가가 쪽지를 보냈습니다. 수산물 고지는 말을 끊고 그 쪽지를 펴서 읽었습니다.

《〈인구 1 인당 수산물 생산량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요〉라, 그래 말해 보자구 우리 나라 것은 모두가 다 아는 것이구, 수산업이 발전됐다구 자랑하는 일본은 59 키로그람, 영국은 28 키로그람이고 잘난 체 우쭐대는 미국은 24 키로그람이지, 우린 미국놈의 3배가 된다.》

더 요란한 박수와 꽃다발이 올랐습니다.

《자, 그만 말하고 이번엔 내가 좀 말 합시다.》

하고 주택 고지가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전투도 쉽지 않았단다. 수천 년 래의 오막살이를 헐어 버리고 새 문화 주택에 집들이하는 일이 쉬울 수야 없는 ?이거든 전국의 건설자, 농촌 건설대들이 1 인 5 세대 운동을 더 광범히 전개했단다. 모두가 9월 말에 자기

계획을 완수하고 년내로 500 세대 더 짓기 운동에 나선 평양시 서구 지구 공공 건설 트레스트 윤 병권 천리마 직장의 모범을 받았단다.

그리고 또 전국적인 지원 사업이 얼마나 굉장했겠니, 거기에다가 수상님이 직접 많은 목재와 많은 자동차를 보내 주어서 걸렸던 문제를 제때에 풀어 주셨단다. 그러니 기세가 대단했지. 그래 주택 고지 점령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거든》

이 때 밖에서 자동차의 고동이 빵빵 울렸다. 강철 고지 전사들이 벌써부터 강철 고지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가만 가만… 이러다간 난 이야기도 못하고 갈 것 같네!》

강철 고지는 이렇게 서둘러서 일어 섰습니다.

《에—내 자랑은 다른 고지들과 또 제 차례를 기다리는 석탄 고지가 다 한 것입니다.

우리 강철 없이 관개 수로에 물도 흐를 수 없고, 무쇠 철마 뜨락또르도 태여날 수 없고, 고기'배도, 방직 기계도, 탄광 기계도 생겨날 수 없지요.

금년도에 우리 강철 고지를 살지우기 위해 성진 제강소의 신중판 압연 직장 강선 제강소에 3만 톤 능력의 강판소재 압연 직장 등을 더 마련해 주었고 광산들에서도 많은 광석을 보내 주었지. 수상님께서 황해 제철소에 몸소 오셔서 우리의 주인인 강철 전사들에게 120 일 전투에로 불러 일으켜 주셨지요. 여기에 우리 강철 고지의 승리의 열쇠가 있었지요.》

시간이 바쁜 강철 고지는 이렇게 말하고 털썩 앉았습니다. 그러자 석탄 고지가 검은 빛이 반지르르하게 흐르는 몸뚱이를 일떠 세우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에— 우리 석탄은 공업의 식량입니다. 우리 없이 강철 고지 형님이 저렇게 뽐낼 수는 없지요. 김 일성 원수님은 우리를 검은 금이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안주 탄광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교시를 받든 전국의 탄광 일'군들이 보수와 신비를 떨쳐 버리고 일떠섰답니다. 8월달에 비하여 9월달에는 12만 8000 여 톤의 석탄을 더 캤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신창 지구 종합 탄광에서 한 달 캐여 낸 량과 같지요. 조양 탄광에서는 벌써 9월에 하루 3천 500 톤을 돌파했지요.

자, 그럼 내가 맨 나중에 말하니만큼 결론도 내가 짓기로 하겠소…》

그러자 알곡 고지가 그 말을 막았습니다.

《좀 가만 있게 우린 여태껏 서로 방조하면서 여섯 개 봉우리에 승리의 기'발을 꽂지 않았나? 그러니 결론도 혼자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하세!》

'그 말은 여섯 형제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수 많은 소년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여섯 형제는 모두가 일어 섰습니다.

《명년에 우리는 더 높은 고지에 뛰여 오르기 위하여 금년도의 성과를 더 튼튼히 하고 7 개년 계획의 수행과 모두가 기와집을 쓰고 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살게 될 1964년의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더 힘차게 일하겠습니다!》

여섯 형제들의 자랑이 끝나자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노래와 춤이 벌어졌습니다.

《두리둥실 춤 추세! 여섯 개 고지의 승리의 노래를!》

여섯 형제들이 소년단원들과 어울려 추는 춤과 노래는 1963년 새 해 아저씨를 맞이 할 시각까지 끄칠 줄을 몰랐습니다.

학습은 우리의 첫째가는 임무

보통 교육상 윤 기 복

오늘 우리 나라 전체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품 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로동당 시대에 태여나 좋은 사회주의하에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조국 앞날의 주인공으로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무한한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김 일성 원수님을 수반으로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국의 앞날을 걸머지고 나갈 우리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여러모로 발전된 인간으로 자라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대하여 끊임 없이 두터운 배려를 돌려 주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6일 내각 결정 제 59 호로써 우리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당의 붉은 전사로,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더욱 훌륭히 준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을 내 세웠습니다.

이번 내각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인민 학교와 중학교, 기술 학교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 하게할데 대한 깊은 배려를 돌려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1964년도부터 전반적 기술 의무 교육제를 실시할 데 대한 중요한 과업을 우리들에게 주시였습니다.

동방에서 처음으로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된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전체 학생들이 무료로 7 년 간의 의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래후년 4 월부터는 누구나 할것 없이 국가의 부담으로 9년제 의무 교육을 받게 될 것이며 모두다 한 가지 이상의 기술 기능을 가진 새 사회의 문명한 일'군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기술 의무 교육제는 아직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 본 일이 없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 제도입니다. 기술 의무 교육제의 실시는 우리 인민의 또 하나의 커다란 자랑으로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청소년 학생들에게 더욱 광활한 배움의 길을 활짝 열어 주는 것입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학교에서는 수업이 기본이며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학생들의 첫째가는 임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가르쳐 주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과 학습을 잘하여 선진 과학과 기술을 배우고 알아야만 당이 요구하는 인재로 될수 있으며 새 사회를 훌륭히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전체 우리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창성군 약수 중학교 학생들처럼 하루도 수업에 빠

치지 않고 그날 배운 것을 그날로 완전히 알며 모두가 우등, 최우등생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배운 지식을 쓸모있게 다지는 것입니다.

이번 내각 전원 회의에서도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산 지식을 배울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학교에 조직된 철공실, 실험실, 가축사, 실습지, 꼬마 진료소, 꼬마 방송실등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더욱 튼튼히 하기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번 내각 결정에서는 학교들에 더 많은 실험 기구들을 만들어 보내 주기로 되였습니다. 동무들은 선생님들의 지도 밑에 물리 실험실, 화학 실험실, 생물 실험실에서 항상 자기 손으로 직접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 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또다시 청소년 학생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 할데 대하여 중요한 교시를 주시였습니다. 사상이 바로 서고 고상한 도덕 품성을 가진 일'군으로 자라야 장차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다 창성군 약수 중학교 학생들처럼 어릴 때부터 로동을 사랑하고 자기 학교와 마을과 나라을 사랑하며, 동무들을 사랑하고 선생님들과 웃 사람들을 존경하며, 국가와 사회 재산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는 습관을 기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나무를 더 많이 심고 꽃밭도 잘 가꾸며 자기 학교를 아름답게 문화적으로 꾸리는 일에 너나 할것 없이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단 생활을 충실히 하며 모두다 훌륭한 모범 소년단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발전된 인간으로 되자면 무엇보다도 공부를 잘하며 공산주의 교양을 쌓으며 체육, 음악 무용등에도 즐겨 참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에서는 체육 대회, 예술 경연 대회, 웅변 대회, 과학 토론회, 작문 짓기 대회, 이야기 모임, 시랑송 모임, 영화 감상 모임등을 더욱 활발히 조직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혁명 전적지 및 명승 고적지 답사, 원족, 등산, 야영, 수학 려행, 견학등을 광범히 조직하여 항일 투사들의 혁명 정신을 배우고 본받으며 몸을 튼튼히 단련하고 지식을 더욱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내각 결정에서는 매년 10월 1일을 학생절로 정하였는데 해마다 이날은 전국 학생들의 즐겁고 흥겨운 명절로 될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내각 전원 회의에서는 동무들이 공부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교과서들과 참고 도서들을 더 많이 더 잘 만들어 주며 각종 학용품들과 악기, 체육 기구 등을 많이 생산 공급 할 것이 결정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들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교구, 비품들도 제때에 보내 주며 학생들의 학과 학습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모든 것을 넉넉히 마련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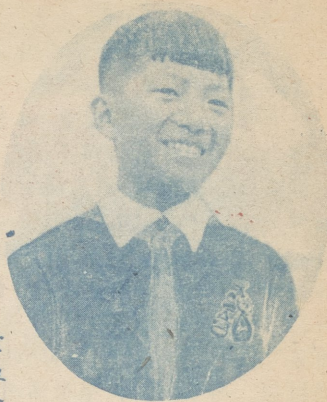
금년에 우리 나라 학생들은 김 일성 원수님의 배려에 의하여 모두가 외투와 동복을 타 입게 되였으며 털모자 털신등도 타게 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배려는 참말로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습니다.

전체 소년단원 동무들은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심장에 간직하고 더욱 열심히 배우며 훌륭한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갖추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두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하며, 공부도 잘하고, 사상도 견실하고, 례절도 바르며, 몸도 튼튼하고, 게다가 다양하고 아름다운 정서를 가진 우수한 학생들이 되여 어서 빨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훌륭한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그리고 친히 김 일성 원수님께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또하나의 크나큰 배려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42 명의 친근한 벗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함경북도 영안군 하우 중학교 단 5 분단 위원장 석 창연 동무에 대한 이야기—

석 창연 동무네 집에는 언제나 동무들이 많이 찾아 옵니다.

하나 둘씩 찾아 올 때도 있고 한물커리씩 찾아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창연이가 언제나 최우등으로 공부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기 분단을 붉은 집단으로 꾸리기 위하여 42 명 분단 동무들을 모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도와 주는 분단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창연이네가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궐기해 나선 것은 작년 6월이였습니다.

이 때 아직 분단에는 학업 성적이 뒤떨어진 동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동무들을 모두 우등, 최우등생으로 이끌어 올릴가?)

창연이는 혼자서만이 아니라 분단 위원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런 말을 내 놓군 하였습니다. 그는 분단 위원회에서 자진하여 분단에서 제일 뒤떨어진 전 동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전 동무네 집은 창연이네 집이 있는 하우 부락에서 10 리나 떨어진 합진리 망덕 마을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반에서는 반 동무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전 동무를 늘 빼 놓았습니다.

그러니 전 동무의 학습과 소년단 생활이 뒤떨어질 건 뻔한 일이였습니다.

창연이는 전 동무네 반에 나가 보았습니다.

《집이 그렇게 먼데 어찌니.》

반장인 영희는 할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그 애의 학습이 자꾸만 뒤떨어지는 건 어쩌니? 넌 모범 분단이 빨리 되고 싶지 않니?》

창연의 이 말에 영희는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창연이는 뒤떨어진 동무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나가려는 그들의 마음부터 고쳐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연이는 곧 분단 위원회를 열고 영희네 반 생활을 의논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저녁입니다. 창연이가 분단 위원인 박 철이와 함께 영희네 반실에 가 보니 마침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숙자도 있었습니다. 창연의 말을 들은 영희는 이 날 숙자와 함께 공부해 보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창연이는 반 동무들에게 소년단원의 의무를 하나 하나 알려 주면서 영희네 반 생활을 도와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 주일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 준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도 반실에 새로 써 붙이고 매일 공부하기 전에 한 번씩 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년 신문》, 《소년단》에서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와 소년단원의 의무들을 훌륭히 실행하고 있는 소년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골라 읽어 주었습니다. 영희네 반 동무들은 저마다 전 동무를 도와 나섰습니다.

반실을 전 동무네 집으로 옮기고 날마다 수업이 끝나면 반 동무들은 반실에서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했습니다. 창연이도 자주 가서 그들이 어려워 하는 산수 공부를 도와 줬습니다. 창연이와 반 동무들의 뜨거운 마음에 감동된 전 동무는 하루의 결석, 지각도 없이 학교에 나왔습니다.

분단 생활도 재미 있어지고 활기 있게 되여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습니다. 전 동무와 일석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창연이가 일석이네 집에 뛰여 가 보니 그는 아직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창연이는 일석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석이는 눈'곱을 뜯으며 아니꼬운듯이 창연이를 쏘아 보았습니다. 순간 창연이는 얼마 전에 일석이가 딴 학교에서 전학해 오던 첫 날 일을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일석이를 데리고 들어 왔을 때 창연이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키가 성큼한 게 축구를 잘 할 것 같았습니다. 창연이는 축구 시합 때마다 2 번이 약해서 걱정해 오던 터입니다.

첫 시간이 끝나자 곧 그는 일석이 곁에 다가 가 인사로

《난 창연이야 넌?》 하고 손을 내 밀었습니다. 그런데 일석이는 흘깃 창연이의 팔에 달린 두 개의 붉은 줄을 보더니만 《알구 있어, 너도 창수처럼 우쭐렁대겠구나.》 하고는 더 대꾸도 않했습니다.

창연이는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바로 그러던 일석이가 오늘은 수업 시간이 다 되였는데도 학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이처럼 자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빨리 세수하고 학교에 가자》. 창연이는 책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창연이가 인석이를 타일러 데리고 그의 집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웬 어머니가 책가방을 메고 합진리 쪽에서 바삐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보던 창연이의 눈은 둥그래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창연이는 모자를 벗어 쥐고 인사을 했습니다. 전 동무네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우리 숙자가 열을 막 내며 앓는구나. 그래서 내가 학습장을 가지고 대신 왔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베껴만 오면 된다면서 막 울며 야단이구나. 모범 분단으로 궐기했다면서 글쎄…》

어머니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요?》 창연이는 놀랐습니다. 우습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분단 동무들과 함께 공부한단 말입니까?

일석이는 이 학교에 오니 별한 일을 다 본다는 듯이 히죽히죽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앓으면서까지 자기의 학습을 생각하는 전 동무의 마음을 생각하고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하시자요. 어머니도 협동 농장 일을 해야지 않겠어요. 그러니 공부가 끝나면 우리가 한 과목씩 정리해 가지고 갈테니 두고 가세요.》 하고 창연이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게 좋겠구나》.

전동무의 어머니는 창연에게 책가방을 맡기고 돌아 가셨습니다. 창연이는 이날 영희네 반 동무들과 함께 그 날 배운 숙자의 학습장을 정리해 가지고 그의 집으로 찾아 가 도와 주었습니다.

창연이가 동무들을 위해 이렇게 애 쓰지만 일석이는 아직 지각도 하고 시간 중에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장난하는 버릇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습니다.

창연이는 분단 동무들에게 어머니에게서 들은 《칠형제》라는 옛말을 했습니다.

일석이는 귀를 솔깃하고 재미 있게 듣는 것이였습니다. (옛'이야기를 좋아하는구나)하고 생각한 창연이는 그 날 저녁 집에 돌아 와 어머니에게 또 옛'이야기를

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에겐 다른 옛말이 없었습니다. 창연이는 일석이에게 재미 있는 옛말을 또 들려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연이는 마을 할아버지들을 찾아 가 옛 이야기를 들어다 일석이와 분단 동무들에게 자주 들려 줬습니다. 일석이는 점점 창연이를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후 창연이는 일석이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함께 공부하면서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과 아동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줬습니다.

일석이는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창연이의 모범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300 권도 넘는 책을 읽은 창연이는 언제나 분단 동무들 속에 있었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그를 둘러 싸고 오손도손 모여 앉아 분단이 해야 할 일도 들었으며 재미 있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창연이는 42 명 분단 동무들의 참된 동무가 되여 분단을 서로 돕고 이끄는 붉은 집단으로 꾸렸습니다.

이리하여 창연이는 이 번에 영예롭게도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았습니다.

참된 동무가 되여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황북 평산군 평산 중학교단 최 상옥—

분단 위원회에서는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궐기한 이 후 사업 정형을 중간 총화하였다.

《김 동무랑 신 동무랑 때문에 우리는 모범 분단이 될 수 없어. 학교에도 나오지 않는 애들이 우등, 최우등을 어떻게 하겠니, 나는 그들을 다른 반에 보내지 않으면 반장을 못 하겠어》

1반 반장 장 영순 동무는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신 동무는 반 모임에서 일을 맡겨 주면 덮어 놓고 떼들기만 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영순 동무는 반장을 못 하겠다고 분단 위원회에 참가하면 이런 말을 하군 하였다. 오늘도 분단 위원회에서는 1 반이 제일 락후하다는 말이 나왔으니 영순이의 가슴이 아프지 않을 리 없었다. 그래서 반장을 안 하겠다고 또 제기한 것이다.

이 날 분단 위원회에서는 분단 위원들의 역할을 높여 반장들을 돕고 락후한 동무들을 한 사람씩 맡아 지도하기로 하였다.

분단 위원장 상옥 동무는 신 동무와 김 동무를 자진하여 맡았다.

분단 위원회에서 돌아 온 상옥이는 먼저 반 동무들과 모여 앉아 의논하기 위하여 반실을 찾아 갔다.

반원들도 신 동무는 못 고칠 아이라고 하면서 빼 돌려 놓고 있었다. 후에 안일이지만 신 동무는 모임에서 한 번도 칭찬이란 받아 본 일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반원들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만 지적해 주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같이 어울려 놀려고도 하지 않았다.

상옥이는 이 사실을 알고 그와 더 가까이 지내면서 그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 내서 분단 모임에서 칭찬 받도록 해야 되겠

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아동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면서 먼저 가깝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늘어 가는 모범 분단 소식을 알려 주면서 소년 신문에 발표된 모범 분단들을 보여 주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범 분단의 경험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북돋아 주군 하였다.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상옥이와 친한 사이로 되였다.

신 동무가 학교에 처음 나왔을 때 분단 동무들은 모두가 기뻐 날뛰였다.

신 동무는 자기 때문에 동무들이 몹시 안타까와 했다는 것을 느끼고 막 부끄러워했다.

이 날 상옥이는 신 동무와 함께 집에 돌아 왔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 일찍 나가서 교실을 말끔히 청소해 놓자고 약속 하였다.

이 날 저녁 반실에 가서도 상옥이는 신 동무의 뒤떨어진 학습을 열심히 도와 주었다.

이튿날 두 동무는 약속 대로 일찍이 교실 청소를 해 놓았다. 상옥이는 벽보 편집 위원회에 미리 이야기해서 《오늘의 신 동무》라는 속보를 써 붙였다. 신 동무의 아름다운 행동은 날마다 늘어 갔다.

이렇게 동무들의 참된 벗으로써 동무를 돕는 그의 지극한 마음은 김 동무를 돕는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김 동무의 집 사정을 알아 가지고 매일 그의 집에 찾아 가 김 동무와 같이 무연탄을 들여 주고 물도 길어 주었다.

그리고 방안도 깨끗이 꾸려 주었다. 밤마다 찾아 가서는 아동단원들의 투쟁 이야기와 소년단원의 의무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면서 그의 뒤떨어진 학습을 도와 주었다.

매일 이처럼 자기를 도와 주는 상옥이의 참된 마음은 김 동무의 가슴을 점점 뜨겁게 하였다.

(지금 모범 분단이 되기 위하여 동무들은 이렇게까지 애 쓰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 김 동무는 이제는 더는 동무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김 동무는 상옥이의 도움을 받으면서 학습에서 최우등생으로 되였다. 자기보다 동무들을 먼저 생각하며 동무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어려운 일에는 앞장에 서는 자기의 아름다운 일이 날마다 늘어 가고 분단은 하나로 뭉치였다.

분단은 마침내 94 %의 최우등생을 가진 우등, 최우등 집단으로 되였고 한 마음으로 굳게 단결된 붉은 집단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작년 11월 18일 영예의 《모범 분단》 칭호를 수여 받았다.

이렇게 훌륭하게 일한 상옥 동무는 이번에 소년단원의 가장 큰 영예인 《조선 소년의 영예상》까지 받았다.

520가지 아름다운 일의 주인공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개성시 선죽 중 학교 단 위원 양 윤규 동무—

작년 9월 초순이였다.

이것은 단위원회에 참가하였던 윤구 동무가 집으로 돌아가던 때 있은 일이다.

보성동 유치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우물'가에서 뜻하지 않았던 소리가 나는 바람에 그는 귀를 기울이고 잠간 발'걸음을 멈추었다.

《첨벙! 첨벙!》 하는 소리가 끄치질 않았다. (무엇일가?)불길한 생각에 덜컥 겁이 났지만 윤규는 지체 없이 우물'가로 달려 갔다.

우물 속을 들여다 보는 순간 윤규의 눈앞은 아찔하였다..

유치원 어린이가 우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였다.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였다. 윤구는 옷 벗을 생각도 잊어버리고 우물 안으로 뛰여 들었다. 우물은 그리 깊지는 않았지만 우물 안에서 그냥 어린이를 떠밀어 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는 량 다리를 돌 짬에 벗닫고 팔다리에 힘을 주어 그를 떠밀어 내려 했으나 이끼 낀 돌에 미끄러져 다시 물 속에 빠지군 하였다. 그는 몇 번이고 같은 동작을 거듭하면서 끝내 어린이를 쳐들어 밖으로 내 밀었다.

그 때 그는 벌써 기진맥진하였다. 그러나 그는 있는 힘을 다 써서 우물에서 빠져 나왔다. 그리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를 빨리 자기 집으로 데려다 옷을 말리워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윤규는 그 길로 어린이를 업고 허둥지둥 집에까지 달려 갔다.

자기 자랑보다도 동무들의 자랑을 더 앞서 하는 윤규는 아무도 보지 못한 이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석달 후에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학교 내 전체 소년단원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였다.

지난 1 년 동안에만도 무려 520 여 가지의 아름다운 일을 한 윤규 동무에게서 이 이야기는 그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어린 혁명 전사들》을 매일 한 제목씩 읽고 자기의 하루 생활을 돌이켜 보며 혁명 투사들처럼 집단과 동무를 사랑하기 위해 힘을 쓴다.

때문에 그는 언제나 동무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동무들을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는다.

한 분단에 있는 김 동무는 귀가 어두어 학습에서 남보다 늘 뒤떨어졌었다. 윤규는 이 일을 누구보다도 앓타까와 했다. 매일 김 동무의 학습장 정리를 도와 주었고 5 리도 넘는 그의 집을 밤마다 찾아 가서 그날 배운 것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김 동무도 지난 학년 말에는 떳떳한 우등생 대렬에 들어 서게 되였다.

집단과 동무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많은 일을 잘 실행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 준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에서 국가 사회 재산을 애호할 데 대한 조항을 토의하였을 때 단 위원회에서는 윤규 동무에게 이 조항을 전체 소년단원들이 잘 실천하도록 방조할 위임을 주었다. 그 후 그는 하루도 빠짐 없이 매 분단 교실을 돌아 다니면서 책상 걸상 등 비품들이 마사진 것이 있으면 솔선 고쳐 놓으며 국가 재산을 애호하도록 가르쳐 주었다.

윤규 동무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밖에도 수없이 많다. 그리하여 이번에 영예롭게도《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것이다.

글 김 준규 그림 김 성엽

우리 나라의 명승 칠보산의 아름다운 줄기줄기가 바다'가에 뻗은 해칠보!

아 아름다워라 고향은

자랑스러워라 나의 조국은…

노래로 전하여지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해칠보에는 이곳 슬기로운 인민들이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이야기도 있고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 미제 원쑤놈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소년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 그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고 있다.

1950년 10 월 중순. 해칠보의 아담한 어촌 마을 이곳 포하리에 미제 원쑤놈들이 기여 들었다. 원쑤놈들은 가축들과 가장집물들을 빼앗아 가는가 하면 로동당원들과 애국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었다. 마을은 온통 수라장이 되였다.

아름다운 동해 바다'가 명승 해칠보의 고향 마을 앞 바다에 고기떼 설레이고 산과 들에는 오곡 백과 무르익는 이곳은 얼마나 살기 좋고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였던가!

그러나 미제 원쑤놈들은 이 행복을 빼앗으려고 달려 들었다. 원쑤들의 만행을 바라보는 정 길찬(명천군 상고 중학교 단 분단 위원장)의 가슴은 찢어지는듯 아팠다. 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웠다. (그렇다 비록 어린 몸이지만 원쑤놈들과 싸워야 한다).

그는 분단 동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려 보았다. 포하 마을에 있는 분단 기수인 리 성근이를 먼저 생각한 길찬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요즈음 《치안대》원이 된 리 태진이와 자주 만나 놀고 있었던 것이다.

태절이를 생각하니 분이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민청원이며 최우등생이였던 그가 어찌 원쑤놈들의 보초를 서 준단 말인가. 태진이는 길찬이 보다 한 학급 우인 초중 2 학년이였다. 길찬은 뒤'집에 사는 정 철성이를 만나 도래'굽이로 데리고 나갔다. 반장인 철성이는 길찬이의 생각을 곧 찬성하였다. 두 동무는 여름철이면 해수욕도 같이 하고 그림도 그리며 마음껏 즐기던 해칠보—송도며, 문필봉을 바라보며 원쑤놈들과 싸울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들은 언제나 만선기 펄펄 휘날리며 먼 바다에서 돌아 오는 아버지, 형님들을 마중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거치른 바다 우에 고기'배 한 척 보이지 않았다.

행복하던 그 때를 생각하면 할수록 두

소년단원의 어린 가슴은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로 타번졌다. 이 때였다. 태진이와 성근이가 성큼성큼 다가 왔다.

태진이는 길찬이를 조용히 만나더니 《너 원쑤놈들과 싸우지 않겠니?》하고 태진이가 귀'속말로 물었다.

《그만 둬, 너 누구를 떠보는 수작이구나.》 길찬은 대뜸 이렇게 쏘아 붙였다. 태진이는 원쑤놈들의 어지러운 표어를 찢은 것을 내 보이며 《넌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우리는 벌써 싸우고 있다.》하면서 안타까와 했다. 길찬은 그제서야 태진이가 원쑤놈들의 《치안대》원으로 가장하고 공작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진이와 성근이는 원쑤놈들과 싸우고 있었다.

이 날 밤, 경평, 포하 두 마을 동무들은 태진이네 집 뒤'방에 모였다.

《자 시작하자!》 태진이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며 글을 쓴 종이 한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 있었다.

나는 해칠보의 소년 공작대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조직 앞에 맹세한다.

1. 고향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미제 원쑤놈들과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

2. 단결은 힘이다. 서로 돕고 이끌어 맡은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겠다.

3. 조직의 비밀을 생명처럼 지키겠다.

소년단원들은 모두 이렇게 결의하고 민청원인 태진이를 《소년 공작대》 대장으로 선출하였다. 해칠보 어린 용사들의 투쟁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다음 날 밤 공작대원들은 첫 투쟁의 길에 나섰다.

길찬이와 정 부는 숨을 죽여 경평 뒤'산으로 올라 가고 있었다. 보촌 쪽으로 통한 전화선을 끊을 임무를 맡은 것이다.

캄캄한 밤, 사위는 쥐 죽은듯 고요했다. 멀리서 철석이는 파도'소리도 들라지 않았다. 길찬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길찬이가 전선'대에 기여 오르려고 할 때였다. 바삭바삭하는 발'자국 소리가 났다.

두 동무는 재빨리 숲 속에 몸을 감추었다. 포하 마을에서 7 리 떨어진 한도치에 사는 《치안대》원 정가놈이 총을 메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원쑤놈이 지나 간 후 다시 임무를 수행하려고 생각하니 갑자기 더 무서워 났다. 뻰찌를 쥔 길찬의 손은 가늘게 떨리였다.

순간 길찬은 유격대원들의 비밀 쪽지를 감추어 가지고 험한 산'길을 넘나든 아동단원들을 생각하였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과 아동단원들처럼 용감한 소년단원이 되자고 다짐한 길찬이가 아니였던가.

길찬은 용기를 내여 다시 전선'대에 기여 오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여서 쉬운 일이 아니였다. 올라 가다가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 왔다.

나무에 기여 오르는 련습을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였다. 두 번 세 번…길찬은 정 부와 번 갈아 오르내리여 끝내 임무를 수행하였다. 다음 날 원쑤놈들은 미친듯 날치였다. 밤 새에 전화선이 끊어지고 자기들의 《사무실》 앞 게시판에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라는 표어가 붙은 것을 본 원쑤놈들은 온 마을을 싸다니며 악을 썼고 산을 뒤집었다.

이것을 보는 공작대원들은 첫 승리를 기뻐하며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였다

밤을 새워 가며 표어와 삐라를 준비하였다. 원고는 길찬이가 담당하고 글은 어른들의 글씨처럼 잘 쓰는 태진이가 썼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 속에서 자라고 소년단 조직에서 배운 공작대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여 자기들의 결의를 훌륭히 수행하여 나갔다. 어느 날 저녁이였다. 경평 마을에서 나오고 있던 태진이는 《치안대》원 한 놈과 마주쳤다.

놈은 《사무실》이 있는 포하 부락 쪽으로 허둥지둥 가고 있었다. 우먼대 쪽을 보니 인민 군대 해군 아저씨들 한개 분대가 마을을 향해 오고 있지 않는가.

이 아저씨들은 무수단에 있다가 뒤늦게 후퇴하던 길인데 원쑤놈들이 이 마을을 강점한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날 포하리 놈들은 무슨 일 때문인지 보촌으로 다 가고 몇 놈 남지 않았었다.

(저놈이 전화 걸려 가는구나)하고 판단한 태진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이때 이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성근이가 뛰여 왔다.

바다'가에서 돛대 우에 기여 오르는 련습을 하고 있던 길찬이와 정 부도 왔다.

더 길게 생각하고 의논할 경황이 없었다.

《길찬이와 정 부는 빨리 보촌으로 통한 전화선을 끊어라. 성근이는 인민 군대 아저씨들을 안내하여 보촌 고개를 빨리 넘어 회남 마을에서 배를 타고 어대진으로 빠지게 해 드리자, 거기는 원쑤놈들이 없으니까》 하고 태진이는 임무를 주었다.

태진이는 《아저씨, 제가 빨리 가서 전화를 걸래요.》하고 《치안대》원놈을 앞질러 《사무실》로 뛰여 갔다.

태진이가 손잡이를 돌리고 수화기를 드니 말소리가 들려 왔다. 아직 전화선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였다. 곁방에서는《치안대》 놈들이 술을 처먹으며 히히덕거리고 있었다.

순간 태진이는 《네? 네?》 하면서 전지의 가는 선을 끊어 놓았다.

《전화가 고장이예요.》 태진이는 헐떡거리며 달려 온 놈에게 수화기를 넘기며 말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원쑤놈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악을 썼다. 한참 발악하던 놈은 끊어진 선을 발견했다.

《자식 이것도 못 봐》 놈은 태진의 뺨을 갈기고 이어 놓았다.

《앗…》 이 아슬아슬한 순간 태진의 가슴은 덜컥 내려 앉았다.

《보촌, 보촌…》 그 놈은 꽥꽥 소리 질렀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다. 우리의 용감한 소년 공작대원 정 길찬, 정 부 동무들이 전화선을 끊어 놓은 것이다.

이 사이에 성근이는 인민 군대 아저씨들의 앞장에 서서 달리고 있었다.…

밤 11 시 제각기 임무를 수행한 소년 공작대원들은 길찬이네 집에 모였다.

가물거리는 어유 등'불이 비친 그들의 얼굴마다는 새로운 승리와 희망으로 이글거렸다.

원쑤놈들과 싸워 이기자면 총과 탄알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소년 공작대원들의 마음을 끈 중요한 문제였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의논했다.

그 다음 날 밤 공작대원들은 한도치 마을로 가는 길'가 숲 속에 숨어 있었다. 《치안대》원 정가놈이 총을 메고 터벅터벅 다가 왔다.

태진이와 성근이가 와락 뛰여 나가 원쑤놈의 허리를 꽉 끌어 안았다. 뒤이어 정 부는 놈의 총을 벗기고 길찬이는 원쑤놈의 가슴을 쿡 찔렀다.

이 때 다른 공작대원들은 원쑤놈들이

이어 놓은 보촌 우면대 쪽 전화선을 끊었다.

《누구야!》

전화선이 끊어져 발악하던 놈들이 검열을 나오다가 소년 공작 대원들의 앞을 막았다. 그들은 불행히도 원쑤놈들에게 체포되였다.

《해칠보의 소년 공작대》 앞에는 어려운 순간이 닥쳐 왔다.

《나머지 아이들 이름을 대라》.

《누가 지도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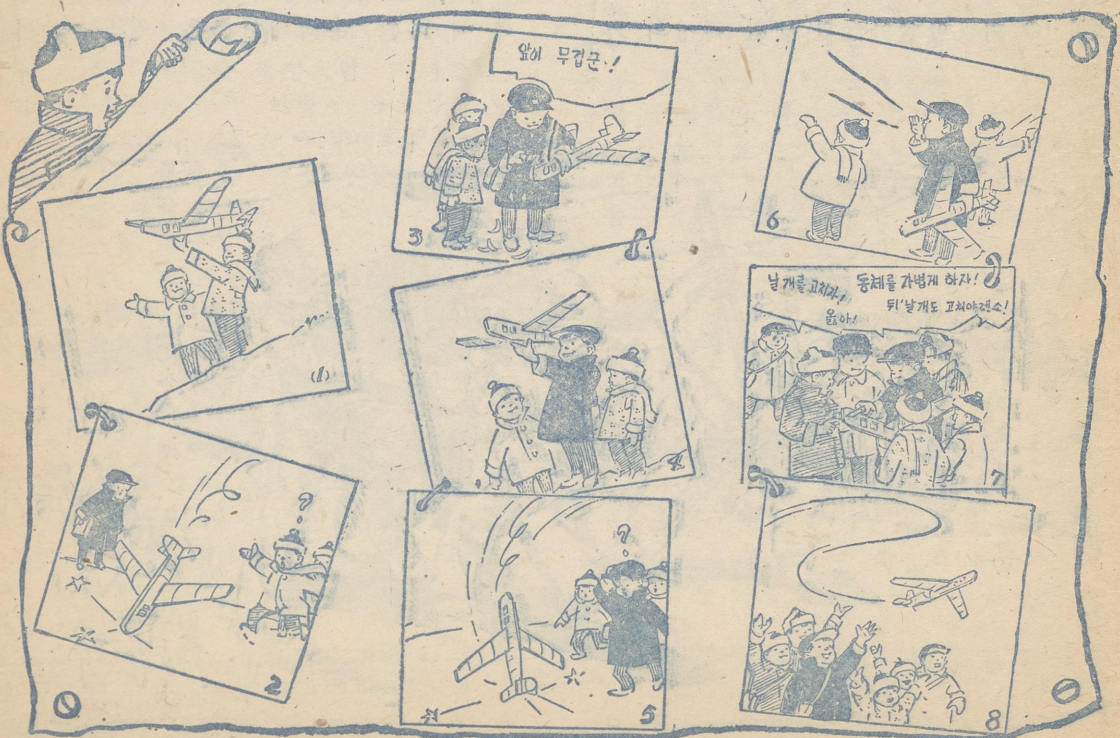
원쑤놈들은 미친듯 달려 들어 고문하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이 때에야 전화선을 끊고 삐라를 뿌리고 표어를 내붙인 것이 어린 소년단원들이였다는 것을 알았다. 소년 공작대원들은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체포되지 않은 동무들은 계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놈들은 네 소년단원들에게 포승을 지워 《보촌》 본부에 끌고 갔다.

어린 투사들은 보촌 고개에 올라 섰다. 이들은 진재기라고 부르는 이 곳을 지나 학교에 다녔다. 여기서는 고향의 바다 동해 바다가 한 눈에 안겨 온다. 해칠보—송도, 포하리 앞 바다의 문필봉, 진출바위, 얼마나 아름다운 고향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고향인가! 학교에 가고 올 때마다 여기 진재기에서 이들은 잠시 쉬면서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이야기도 하고 시도 읊고 노래도 부르고 반 모임도 가졌던 것이다. 이 아름다운 고향을 짓밟는 미제 원쑤놈들을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는가.

소년 공작대원들은 《감방》에 갇히였다. 원쑤놈들은 차례 차례로 불러 내다 모진 고문을 가했지만 아무 것도 알아 낼 수 없었다.

이렇게 1 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밤 요란한 총소리가 나더니 《감방》 문이 와락 열리였다.

《아저씨!》 아이들은 빨찌산 대장인 면당 위원장 아저씨의 가슴에 와락 안기였다. 고향은 만세 소리로 들끓고 온 마을에 펄펄 공화국 기'발이 휘날리였다.

[련재 만화] 끼돌이 그림 안 창수

잡지 《별나라》 때를 돌이켜 보며

어제와 오늘의 아이들

박 세영

지난 여름 나는 송도원 소년단 야영소를 찾아 가 즐겁게 야영 생활들을 하고 있는 소년단원 동무들과 만난 일이 있다.

야영소는 송도원 한 끝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듬성듬성 서 있는 솔'장막에선 솔바람 소리, 모래'불을 적시는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 소리, 옥이 부서지듯 뒤를 이어 밀려 오는 흰 물결은 발'자국을 연신 지워 놓는다.

동해 바다를 얼싸 안은듯 산'발들은 바다로 뻗어 내리고 저 멀리 수평선에는 띠엄띠엄 크고 작은 섬들이 떠 있듯 솟아들 있다.

하늘 높이 솟은 문천 제련소의 굴뚝에서 피여 오르는 연기는 바다 저 멀리 구름처럼 떠 간다.

끄칠 새 없이 원산항으로 드나드는 어선들은 하나의 섬처럼 섬 사이에 나타나는가 하면 어느 새 풍어기를 단 기관선들이 되여 들어들 온다. 그러기 갈매기들도 춤을 추듯 날아예는 것인가.

이렇듯 조국의 아름다운 경개를 한 눈에 보면서 소년단원들은 마음껏 뛰여 노는 것이다. 저마다 흰 등산모를 쓰고 붉은 넥타이를 날리며 로동당 시대의 꽃봉오리들이 되여 김 일성 원수님 품에서 자라나는 저희들의 행복을 자랑하는 것이다.

화려한 야영소의 건물, 훌륭한 설비, 이 야영소야 말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다. 나는 외국에 갔을 때도 두 세 군데 야영소들을 본 일이 있으나 이렇게 훌륭한 야영소는 본 일이 없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가장 좋은 것은 어린이들에게라고 하시며 항상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김 일성 원수님께서 야영소 자리도 제일 좋은 이 곳에 친히 잡아 주셨고 생활이 재미 나고 풍족하도록 보살피여 주셨으니, 원수님의 어버이 사랑이 그대로 이 야영소에도 넘치고 있으니. 우리 소년단원들이 이와 같이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니 내 머리 속엔 지나간 시기 왜놈들에게 짓밟히고 억눌렸던 그 때의 아이들이 생각키운다.

지금도 내 눈에 떠 오르는 것은 헐벗고 굶주리는 아이들, 학교라고는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던 그 때의 아이들이다.

그러니 학교에 다니는 돈 있는 집 자식들보다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이 더 많았다. 나이 열 살도 못 되여서부터 산에 올라 가 땔나무를 해다 팔아서 집안 살림에 보태는 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았던가.

추운 겨울 산에 가서 나무를 할 때도 언 조밥을 먹으며 단 돈 이십 전을 벌기 위해 수 십 리를 지고 가야 하니 어린 나무'군들의 손발은 다 얼어 터졌다.

농촌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도시에서도 그 때는 소년공들이 공장 주인놈의 하루 담배 값도 안 되는 삯전을 받으며 열 대여섯 시간씩 일을 해야 했다. 자본가놈들은 여윌대로 여윈 아이들까지 이렇게 악착스럽게 착취를 했던 것이다.

나무를 하는 아이들은 누더누더 기웠거나 갈갈이 찢기여 살이 들어나는 옷들을 입었는가 하면 소년공들의 옷은 굴뚝에 빠졌던 아이들처럼 기름 때 묻은 더러운 것을 입고 다녔다.

그리하여 농촌에서는 이와 같이 가난한 농민들의 아들딸들이 《농민 조합 소년부》에 들어서 지주들과 싸우는 아버지들을 도와 주었고 공장에 다니는 소년공들은 《로동 조합 소년부》에 들어서 공장주와 싸우는 로동자 아저씨들을 도와 남몰래 편지도 전해 주며 련락들을 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동무들이 그 당시의 잡지 《별나라》 독자였으며 또 작품의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하였다. 물론 주인공으로 나오는 인물들은 대개 용감하고 동무들을 지극히 사랑하며 옳은 일을 위해서는 굽히지 않는 동무들이다.

그들은 일제 침략자들과 자본가 놈들을 미워하고 없애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루 속히 좋은 세상이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없을가 하는 생각에 불타고들 있었다.

그래서 요행수로 공립 보통 학교에는 들어 갔으나 월사금을 못 내서 학교에서 쫓겨 나는 아이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산림 간수나 산 주인에게 들키여 매를 맞고 낫을 빼앗기고 지게를 부시우게 되는 비참한 생활을 그리기도 하는 것이였다.

또는 공장에 수십 년이나 다녔건만 이제는 늙었다고 돈 한푼 안 주고 공장에서 내여 쫓긴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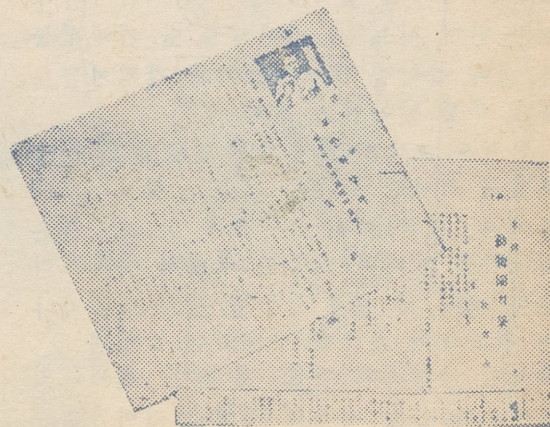
아버지는 아들딸들이 락심할가 봐 공장에서 쫓겼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공장에 여전히 나가는 척 날품팔이로 돌아 다녔으나 아무리 해도 살아 갈 수가 없어서 아들에게 사실을 말하니 아들은 다니던 야학이나마 그만 두고 소년공으로 공장에 들어 가는 쓰라린 이야기도 있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별나라》 독자들의 생활과 감정에 맞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눈을 밝게 띄여 주었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못 살게 되며 굶어 죽는가, 병이나도 누구 하나 돌봐 주지 않는 놈의 세상 하고 이를 갈며 그놈의 세상을 원망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잡지 《별나라》를 친한 벗으로 생각하였고 달마다 손꼽아 기다리였다. 온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큐바에서도 수만의 독자들이 《별나라》를 애독하였다.

《별나라》는 본래 가난한 아이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값을 5 전으로 하였다. 그러나 5 전이 없어서 《별나라》를 사지 못하고 빌어서 읽는 동무들이 많았고, 남에게 돈을 꾸어서 겨우 사 보는 동무들도 있었다.

오늘의 아동 문학 작가 리 원우 선생도 그 때는 소년공으로 공장에 다녔으나 흔히 《별나라》를 살 돈이 없어서 쩔쩔 매다가 어떻게 돈을 꾸어 사 보는 수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니 여기에 그 당시 쓰라린 이야기를 어찌 다 하랴.

그러나 오늘은 얼마나 행복한가!

김 일성 원수님께서 항일 유격대를 이끌고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싸우실제 벌써 그 때부터 마련하신 세상이 오늘과 같이 로동당 시대로 꽃피였으니 세상에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공화국 소년단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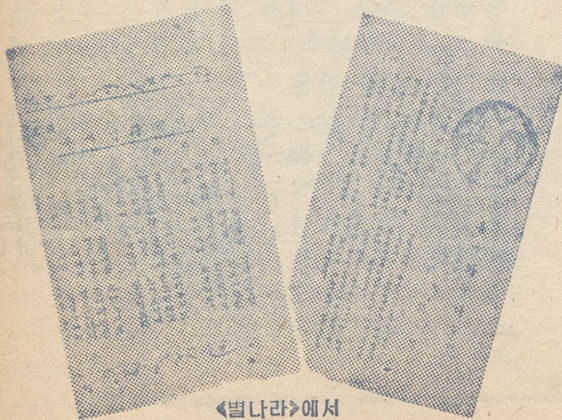
《별나라》에서

오늘의 우리 귀여운 꽃봉리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얼마나 행복스럽게 자라며 래일의 큰 일'군들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즐겁게들 공부들을 하고 있는가. 《별나라》 독자들이 어둑컴컴한 오막살이 방에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휘황찬 새 세상을 오늘의 소년단원들은 얼마나 분에 넘치게 누리고들 있는가.

야영소들만이 아니라 웅장하고 화려하게 일어들 선 《아동 궁전》들을 보라! 그것은 바로 당과 원수님께서 우리 소년단원들을 더 없이 사랑하시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원수님께서는 아동궁전에 오셔서 공화국의 꽃봉오리들이 씩씩하고 행복스럽게 잘들 자라나라고 신년축하를 보내 주시니 세상에 우리 나라 소년단원들처럼 복 받은 아이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

오늘은 소년단원들을 위하여 《소년 신문》, 《소년단》 《아동 문학》 외에도 아름답고 재미나는 출판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모두 마음 대로 사들 읽는다.

그러나 왜정때는 출편물들이 겨우 나와도 사보기도 어렵지만 책이 세상에 나오기부터도 아주 힘 들었다. 좋은 글에 대해서는 일본놈의 경찰이 발악적으로 못 실리게 삭제를 하였다.

《별나라》에서

또는 편집자를 붙들어 가서 감방에 가두고 고문을 일삼았다. 놈들은 민족의 량심을 조금이라도 담은 글이면 덮어 놓고 사상이 나쁘다고 이렇게 탄압을 하였다.

어떤 때는 400~500 매 가량되는 《별나라》의 원고를 온통 압수해서 못 나오게 하는 때도 많았다. 그러면 몇 날 밤을 새워 가면서 원고를 다시 써서 허가를 맡아야 발행할 수 있었다.

흉악한 일제는 삼천리 강토를 총검으로 짓눌러 조선 인민의 자유를 빼앗았을 뿐 아니라 조선 인민의 피와 기름을 모조리 짜 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찬란한 문화와 우리 나라 말까지도 이것을 없애며 못 쓰도록 미쳐 날뛰였다.

동무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어린 시절을 이렇듯 회상하니 미제가 도사린 오늘의 남조선 아이들을 잊을 수 없다.나는 《전국 혁명 학원 및 초등 학원 예술 축전》이나 《전국 소년 예술 축전》같은 것을 볼때는 지난 날이 생각키워 눈'시울이 뜨거워지군 했다.

소년 예술 축전도 세상에 더 없을 황금 예술이지만 공연 제목의 내용부터도 어느 것이나 입을 걱정, 먹을 걱정, 배울 걱정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의 생활을 노래하였다. 그리고 민청 형님들을 따라서 씩씩하게 자라며 나아가서는 당과 원수님께 드리는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들끓고 정말 아동단원들이 목숨 바쳐 싸우던 그 때, 일제 때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 나라 사회 제도가 얼마나 좋으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다는것을 뼈속까지 느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소년단원들의 벅찬 희망도 천리마의 날개가 되여 휘황한 공산주의 앞날의 투사로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참된 전사로 더욱 열심히 준비해 나가자!

보이지 않는 통신원

최우등생의 한 해

나는 이 해의 마지막 길로 영예의 최우등생으로 이름 난 개성시 운학 중학교의 백 운일 동무네 집에 찾아 갔습니다.

내가 찾아 갔을 때는 마침 운일 동무는 없고 그의 책상과 책꽂이들이 무엇인가 서로 재미나게 소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그들 앞으로 갔지요. 나를 발견한 그들은 《통신원 동무,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린 최우등생인 우리 주인 운일 동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든 참인데 좀 들어 보세요.》하고 책상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정말 기뻐요. 동무들은 늘 나를 보고 〈최우등 책상〉이라고 부르질 않겠어요.》 책꽂이도 맞장구를 치면서 《정말 그래요. 운일 동무의 덕분에 나도 언제나 새 옷 차림을 하고 있어요. 곱게 뚜껑을 씌운 책과 노트들이 가지런히 항상 서 있게 되니 말이예요》.

이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운일이의 일과표가 한 걸음 척 나서더니 《그거 따내 덕분인 줄 알아야 해, 내가 없다면야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도 없지.》하고 아주 우쭐해서 말을 가로 채는 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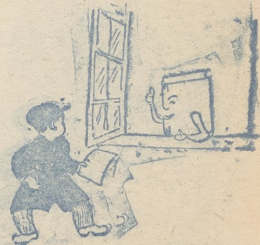
그 때에야 나는 책상 우'벽에 곱게 그려 붙인 일과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과표는 묻지도 않는 말을 앞서 가며 자랑하는 것이였습니다.

운일이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조기 체조와 청소를 하고 산뜻한 기분으로 한 시간을 공부하는데 아침에는 주로 대수, 물리, 화학, 기하 등 많이 머리를 써 생각해야 하는 과목을 학습하고 저녁에는 문학, 력사 등 많이 읽어야 할 과목에 중심을 두고 복습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꼭 머리 안에 외워 두어야 할 공식, 정리, 법칙 같은 것은 수첩에 적어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에 오고 갈 때나 놀 때에도 짬짬이 펼쳐 보군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반 학습에도 모범적으로 참가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반에 가면 서로 힘 든 문제를 내 놓고 토론하기도 하고 그래도 잘 모르는 것은 선생님에게 찾아 가 다시 설명을 들어 끝내 알고 넘어 가군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험, 실습도 아주 잘 한대요. 새로 배운 지식은 실험실이나 산과 들에 나가 실험하고 관찰하여 더욱 쓸모 있게 익힌다는 것이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방 안을 휘둘러 보니 그가 만든 일과표들이 눈에 띄였습니다. 나는 일과표의 말에 정신이 끌려 기차 시간이 다 된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여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이 번에는 사진틀 안에서 《잠간만.》하고 찾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그 속을 들여다 보니 5 자만이 가지런한 운일 동무의 성적표가 아니겠어요. 그래 나는 발을 멈추고 잠간만 더 머물러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운일이는 하루의 지각, 결석도 없이 학교에 다니면서 그 날 배운 것은 그 날로 알고 넘어 간다는 것이였어요. 그래 이것은 튼튼한 집터 우에 새 벽체를 한장씩 차근차근 올려 놓는 것이라지 않겠어요. 더욱이 그의 지식을 넓혀 주는 것은 많은 책들이랍니다. 그의 손에서는 언제나 회상기를 비롯하여 《소년단》, 《아동 문학》, 《소년 신문》이 떨어질 줄을 모른답니다. 올해 한 해만 해도 그는 100 권의 책을 읽었답니다.

《그러니 최우등생이 되지 않을 수 밖에 없지 않아요》 하고 성적표가 자랑스럽게 말끝을 맺으려고 하는데 반 학습에 갔던 운일 동무가 돌아 오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운일이가 무엇을 하는가고 잠간 더 서서 보았습니다.

운일이는 반실에서 돌아 오자 래일의 시간표를 꺼내 놓고 래일 배울 책들을 차근차근 가방 속에 넣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꽂이에서 회상기를 꺼내여 한 제목을 읽더니 다음 일기장을 펼쳐 놓고 하루의 생활을 총화하는 것이였어요. 그는 이 날 일기장에 새해 결의도 적었습니다.

…최우등의 영예를 계속 지키리라, 그리고 혁명 투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본 받아 그들처럼 배우며 일하고 소년단 조직 생활에 더 충실함으로써 참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겠다…

나는 그의 일기를 정신 없이 보다가 하마트면 기차 시간을 어길번 하였지요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차에 올라 우리의 모든 소년단원 동무들이 운일 동무처럼 공부한다면 최우등은 늘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돌아 왔습니다.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지난 여름 어느 날 밤 나는 함북 명천읍에 들린 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폭풍이 휘몰아 치는 사나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지 《얘들아 빨리 빨리》 하고 웨치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몇 명의 소년단원들이 폭풍에 쓰러지려는 가로수를 껴 안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어둠 속을 뚫고 한 물커리의 소년단원들이 삽을 들고 달려 오는 것이였습니다. 나무 그루 마다에 흙을 퍼다 주고 발로 꽁꽁 다지는 동무도 있었고 받침대를 대고 새끼로 동여 매는 동무도 있었습니다.

《계순아 난 학교 교실에 가 볼래.》 한 소년단원이 이렇게 말하고 폭풍을 맞받아 뛰여 가는 것이였습니다. (교실엔 뭐라 갈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느 새 넓다란 학교 운동장에 들어 섰습니다. 교문에 써 붙인 글'발을 보니 함경북도 명천 중학교였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 어느 한 교실에 들어 갔습니다.

창문'가에 다가 가자 그는 《아니?!》 하고 웬 일인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유리 창들은 꼭꼭 채워져 있고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빗쇠에는 붉은 천쪽이 매여져 있었거든요. 그 애는 그 붉은 천을 만져 보며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자기의 머리에 달린 붉은 리봉을 떼 내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더니 이것 보세요, 자기의 리봉을 다른 유리창 빗쇠에 걸어 창문을 비끌어 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유리창을 흔들어 보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자기의 물건보다 학교의 재산을 더 귀중히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행동을 공화국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알려 주리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급히 서둘며 올라오다 보니 글쎄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 나는 곧 명천 중학교에 편지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이 학교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회답이 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 학교 16 분단 동무들은 폭풍과 싸워 이겨 50 그루의 가로수를 구원했습니다. 며칠 전에 칠보산에 가서 떠다 심은 것이였지요. 그리고 그 날 밤을 밝히며 유리창을 보호한 붉은 리봉은 황 남순 동무와 리 명숙 동무의 것이였습니다.》라고.

과학 환상 이야기

신기한 과학 도시

김 동섭　　　　그림 오 영북

(전호에서 계속)

아저씨도 퍽 반가와 하면서 《자 그럼 우리 어데로부터 구경을 시작할가?

아 참 우선 너희들이 이 과학 도시의 내용부터 좀 알아야 되겠다. 이 도시에는 모든 생산 공정이 완전히 자동화 되여 있는 공장들이 세워져 있고 수많은 실험실들과 여러 가지 부문의 과학 연구 기관들이 있단다.

여기서 새로운 문제들을 연구해서 실험이 성공하면 곧 생산에 적용해 보며 만일 잘 되면 곧 온 나라에 널리 보급한단다. 그러면 방방곡곡에선 그 방법 대로 새 것을 만들어 내고 질을 더 높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과학 도시는 정말 중요한 임무를 띄고 있지》 하고 말하는 것이였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나라 과학의 중심지이고 고향인 셈이로군요.》 연석이는 이제야 좀 알았다는 듯이 되풀이했다.

《아저씨!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이 도시는 여름이 되였는지 퍽 궁금해요.》 정옥이가 물었다.

《음, 그거야 아주 간단한 일이지, 너희들 저쪽 산등성이를 보렴. 거기에 동그란 그물 같은 게 보이지 않니? 저게 바로 태양의 복사열을 모아서 우리 도시에 집중시켜 주는 장치란다. 그 덕분에 여기서는 겨울에도 여름이나 봄처럼 따스하게 지낼 수 있단다.》 아저씨는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닌듯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였다.

《야! 일년 사철 푸른 락원이라!》

경철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감탄하여 소리쳤다.

《자 그럼 우리 어디로부터 구경을 시작할가? 그렇지. 모든 일이 설계로부터 시작되는 법이니깐 우선 설계 연구소부터 가 보는 것이 어떠냐?》.

《네 좋아요》 아이들은 모두 찬성했다.

잠시 후에 아이들은 아저씨의 안내를 받으면서 정밀한 기계들이 빽곡히 들어 차 있는 넓은 방 안으로 들어 갔다.

빽—빽—사르릉, 찰각거리는 전자 기구의 소리가 들려 왔고 여기저기에서 울긋불긋한 전등'불들이 깜박깜박 아롱대고 있었다.

《여기서 바로 새 기계 장치들을 설계한단다.》 아저씨가 설명하는 말씀이였다.

《아니 설계하는 사람들은 다 어데 있나요?》 경철이는 그 언젠가 한번 설계 연구소에 구경갔던 일이 생각났는데 그 때는 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설계를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음 여기선 이전처럼 사람이 계산을 하고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계들이 그 일을 한다》.

《네? 기계가요?》 아저씨의 말을 듣고 아이들은 일제히 되물었다.

《그렇다. 사람들은 이 기계들에다가 어떤 데다 쓰는 어떤 성능을 가진 기계들을 설계해라 하고 과업을 준단다. 그러면 기계가 혼자서 그런 기계들 계산하여 설계해 놓는 것이다. 사람은 다만 그 기계가 옳게 일을 하는가를 살피고 만일 고장이 날 때는 고쳐 주기만 하면 된다.》 아저씨는 연성 부지런히 설계도를 그려 나가는 기계팔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그래 지금 이 기계가 무엇을 설계하고 있나요?》 영석이가 물었다.

《지금 이 기계는 원자력 발전소의 반응기를 설계하고 있다는구나, 사실 이런 반응기를 옳게 설계하자면 수십 명의 학자와 기사들이 몇 해 동안 계산을 하고 실험을 해도 다 하지 못할만큼 많은 계산들을 해야 되는 법이다.

그런데 이 기계들은 불과 며칠 사이에 그걸 모두 해 치운단다.》

《야 정말 멋 있군요》 경철이는 퍽 재미나 하는 것이였으나 영석이는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뒤 따라 걷고 있었다.

《자 그럼 이 번에는 설계된 기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기로 하자.》

아저씨는 성큼 움직이는 길 우에 올라 섰다. 아이들은 곧 뒤따라 섰다.

그들은 곧 우렁찬 기계 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는 넓고 환한 기계 공장 안으로 들어 섰다. 거기에는 수십 대의 기계들이 줄 지여 서 있었다. 눈이 핑핑 돌아 갈 지경으로 빨리 움직이는 기계가 있는가 하면 직경이 서너 아름이나 될 듯한 큰 쇠'덩어리를 물고 천천히 돌아가면서 손'가락 같은 쇠'밥을 뚝뚝 떨구는 큰 기계도 있었다. 그런데 기대공 아저씨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기계를 다루는 로동자 아저씨들은 다 어데 갔나요?》 정옥이가 이상해서 물었다.

《이 기계들은 사람들이 기계마다 붙어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을 모두 한 사람이 자동 조종을 하고 있다. 저길 보려무나》.

아저씨가 손을 들어 가리키는 곳을 보니 흰 실험복을 입고 붉은 댕기를 단 누나가 혼자서 조종대 앞에서 이 숫한 기계들을 운전하고 있는 것이였다.

아이들은 얼른 그리로 다가 갔다. 때 마침 그 누나는 기계에다가 돌돌 말아 놓은 종이 뭉치의 한 끝을 풀어서 밀어 넣고 있었다.

《저건 무엇이나요?》 경철이가 물었다. 《음 저 게 바로 사람과 기계 사이에 서로 뜻을 전하는 말과도 비슷한 것이란다. 기계와 사람 간에는 우리 사람들 끼리 쓰는 말이나 글로서는 뜻이 통할 수가 없지 않니. 그래서 저런 종이'장을 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미 정해 놓은 규칙 대로 구멍을 뚫어 사람의 뜻을 적어 넣는 것이다》.

《알겠어요. 아저씨, 그러니까 그 구멍이 어떻게 뚫렸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져 나오는 부속품들도 서로 다르겠군요》.

영석이는 곧 알았던 모양이다.

《그렇다. 기계는 그것을 읽고 그 대로 일을 해서 사람이 요구하는 부속품들을 깎는 것이란다.》 아저씨는 우렁찬 소리를 내며 돌아 가는 기계들의 한 복판으로 천천히 걸어 나가며 대답하는 것이였다.

그러는 사이에도 부속품들은 차례차례 계주나 하는듯이 한 기계에 들어 가서 깎이우고 또 다른 기계로 옮겨 가군 하는 것이였다. 그전 같으면 이런 기계 공장 안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정말 자동화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기계 공장을 나선 그들은 잠시 쉬기 위해서 휴게실로 들어 갔다.

아늑한 휴계실에는 고운 주단이 깔려 있었고 합성 유리로 만들어진 기둥들이 유난히도 영롱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여기 저기에 여러 가지 그림과 조각 등 공예품들이 장식되여 있었고 폭신한 의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다리를 쭉 펴고 앉았다.

책상 우에는 테레비죤 비슷한 것이 하나 놓여 있었다.

《저건 테레비죤이겠죠.》 영석이가 유심히 들여다 보며 물었다.

《그것은 보통 테레비죤이 아니라 번역 기계다.

다른 나라 책들을 기계가 읽고 우리 말로 번역해 줄 수 있고 우리 말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기도 한다.》 아저씨는 례를 들어 설명해 주었다.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네.》 경철이는 그 기계의 겉모양을 유심히 살펴 보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거야 뭐 어려울 게 있겠니. 가만 있자 너희들이 들은 일이 있는 쏘련의 동화나 한 번 들어 볼가?》

《무슨 이야기 말이예요?》

정옥이는 아저씨에게 몸을 기대고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자 보렴 이 책을 기계에다 주겠다. 이 책은 로어로 씌여 있지? 그렇지만 기계는 우리 말로 옮겨서 읽어 줄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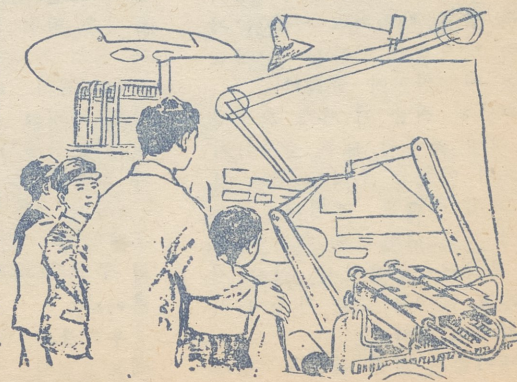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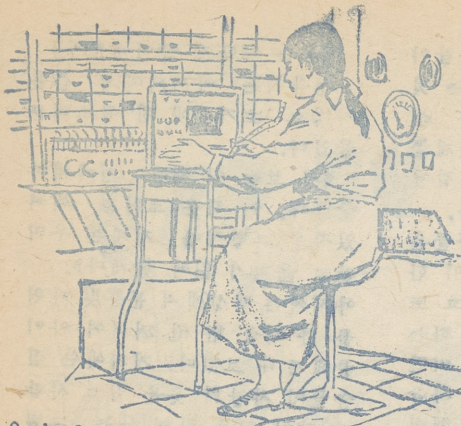
아저씨는 책상에서 분홍빛 가위를 한 책을 한 권 꺼내여 아이들에게 내 보였다. 거기에는 짐승들이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과 같이 집을 짓고 사는 그림들이 여기 저기 그려져 있었다. 그러니 분명히 동화책이였다.

아저씨는 잠간 동안 장치를 어루만지더니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자 금방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나오는 것이였다. 아이들은 아름답고 재미 있는 동화의 세계로 끌려 들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윽고 말 소리가 들려 나오기 시작했다.

《옛날에 어느 두메 산'골짜기에 양 한 식구가 살고 있는 오막살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양은 날마다 농사를 지으려 나가고 어머니 양은 가끔 장을 보려 먼 곳으로 갔다오군 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어린 양 세 형제가 문을 꽉 잠그고 집을 지키군 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이 근처에는 흉악한 이리가 가끔 싸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였으니깐요》.

그들은 한참 동안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기계에서

울려 나오는 말 솜씨는 이야기를 구수하게 잘 해 주는 할아버지만 못지 않았다.

《정말 갈수록 놀라운 일이로군요.》

영석이와 경철이는 계속 경탄할 뿐이였다.

《이 기계는 이렇게 이야기나 듣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 사업에 아주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계 각국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즉시로 서로 가르쳐 주고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번역 기계는 얼마나 큰 역활을 노는 셈이냐》.

아저씨는 계속하여 우리들은 인류가 이룩한 모든 과학적 성과에 토대하여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느니만큼 이 밖에도 수만리 되는 먼 거리에서 서로 마주 보며 얘기를 하거나 먼 곳에 있는 책도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원거리용 테레비존 전화라든가 연구 결과들을 서로 알려 주는 과학 통보 련락 장치 등과 같은 기묘하고 정밀한 기계와 장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여 주었다.

그런데 지금 이 과학 도시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이렇게 우리는 세계 선진 과학 수준에 떳떳이 올라서서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겯고 과학의 전선에서 앞장 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들은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아저씨의 말을 듣고 있었다.

《자 이젠 어디로 가 볼가?》 아저씨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아저씨 우린 암만 해두 꿈속 같기만 해요.》

《정말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서 얘기해 주세요. 네?》.

경철이와 정옥이는 아저씨의 량 손에 매달려서 물었다.

《하하 무슨 얘기 말이냐?》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멀리서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어떻게 기계가 설계를 하고 사람이 시키는 대로 부속품을 만들어 내고 번역까지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영석이도 물었다.

《난 꼭 이 도시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재각돼요.》 정옥이가 보태였다.

《과학 도시에 비밀이 있다구? 그렇게 새각할 수도 있지, 그러나 아무 것도 신비로운 것은 없다. 그것은 바로 전자 계산기가 있기 때문이란다》

《네?! 전자 계산기요?》

《그렇다. 뜨락또르나 선반이나 탈곡기 같은 기계들은 사람의 육체적 로동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기계들이지.

그런데 이 전자 계산기를 리용하면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정신 로동의 일부분을 기계가 대신하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저씨는 담배를 피워 물면서 천천히 알기 쉽게 이야기하여 주었다.

《그 전자 계산기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기에 그렇게도 신통한가요?》 영석이가 고개를 갸웃둥하며 물었다.

《원리 상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들의 머리 속에 있는 뇌수의 구조와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뇌수는 수 많은 뇌세포들로써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로 작용해서 사람이 생각도 하고 기억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 계산기에서는 이 뇌 세포의 역활을 수만 개의 전자관이나 반도체 알맹이가 대신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이 하는 정신 로동의 일부를 맡아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란다.》

아저씨의 얘기는 들을수록 재미나고 신기한 것이였다.

《그럼 정말 전자 계산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도 수천 수만 가지의 계산을 할 수 있나요?》 경철이가 물었다.

《그렇구 말구 그런 높은 계산 속도를 가진 전자 계산기가 있어야만 저 먼 별나라에 띄워 보내는 로케트의 항로도 계산할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설계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아주 헤아릴 수 없이 유익한 계산들을 단숨에 해치울 수 있다.

이 재미나는 도시의 자동화의 비밀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저씨, 그럼 사람의 머리보다도 더 훌륭한 전자 계산기도 만들 수 있나요?》 경철이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듯이 물었다.

《아니 그렇게는 될 수 없다. 뜨락또르는 밭 가는 데 쓰고 기중기는 짐을 척 드는 데 쓰 듯이 모든 기계는 자기의 사명이 있는 법이다.

그런즉 사람의 손과 똑 같이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기는 어렵 듯이 아주 다양하게 발전된 우리 사람들 뇌수와 똑 같은 전자 계산기는 만들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사람이 하는 정신 로동 중에서 어느 한 몫만을 대신하는 기계들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그런즉 아주 훌륭하게 발전된 우리 사람의 뇌수보다도 <더 좋은> 기계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아저씨는 아이들이 이것은 꼭 잘 알아 두어야 하겠다는 듯이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였다.

《그럼 이 과학 도시에는 아주 많은 계산 기계들이 있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기계가 모두 해주면 사람은 대체 뭘 하게 되나요?》

경철이는 이렇게 자동화되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뭘 하다니? 아무리 자동화가 된다고 해도 그런 자동 설비들을 연구하고 만들어 내서 꾸려 놓고 또 움직이도록 하는 일을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니.

우리가 자동화 하는 것은 일을 쉽게 하면서도 혼자서 많은 것을 만들어 내고 더 훌륭한 것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아무리 자동화가 되여도 로동을 떠나서는 사람은 살아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그 로동이 더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을 리용해서 쉬워지고 흥겨워지는 것이 다를 뿐이다》.

아저씨는 간곡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그럼 자동화가 발전할수록 우리들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겠군요》.

영석이도 이제는 똑똑히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그렇다. 전자 계산기가 아무리 신통하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고 사람이 일을 잘 시켜야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복잡하고 고급 기계를 만들며 그것들을 다루기 위해 우리의 지식은 그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

아저씨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경철이는.

《그러니까 아무리 전자 계산기가 있다고 해도 산수 문제 풀이는 계속 제 힘으로 해 봐야겠군요.》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것이였다.

《암 그렇구 말구, 그렇게 해서 충분히 배운 후에야 이 기계들을 옳게 다룰 수 있지》.

아저씨는 퍽 만족해 하면서 경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경철아, 집에 돌아 가면 우리 아직도 못 다 한 숙제 문제를 래일까지 몽땅 풀어 놓자응.》 영석이의 말이였다.

《응 그래!》 경철이는 짧게 대답하는 것이였으나 그 말 속에는 깊은 결심이 스며 있음을 영석이는 짐작할 수 있었다.

《오빠! 나도 같이 공부 잘해서 이 훌륭한 도시에 살 수 있는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될테야》 정옥이도 말하였다.

《그래 우리 모두 공부를 더 잘 해서 우리 힘으로 이 과학 도시보다 더 훌륭한 도시를 만들어 내자구!》 영석이는 경철이와 정옥이의 손을 꽉 끌어 쥐면서 말하였다.

옆에서 이 광경을 대견하게 바라보고 있던 아저씨는

《착한 생각들이다.

이제 오래지 않아서 우리 나라는 이 과학 도시처럼 온통 과학의 나라로 될 게다!》 하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면서 세 소년의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이였다.

그들은 과학 도시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랐다.

자시 장철 젊음을 자랑하는 도시는 가없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온 누리가 그들의 행복한 래일을 약속하는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 끝 —

(이것을 아십니까?)

왜 철'길의 침목은 직접 땅 우에 깔지 않을가요?

우리들이 레루를 보면 레루는 침목 우에 있고 침목은 자갈 우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가요? 레루를 직접 땅 우에 놓으면 될 터인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레루는 직접 땅 우에 놓으면 기차의 무게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레루는 땅에 들어 배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루 밑에 침목을 깔고 또 그 아래에 자갈을 깔면 땅과의 닿는 면적이 커져서 아무렇지 않는 것입니다. 또 침목 아래에 자갈을 펴면 침목이 잘 썩지 않는 것입니다.

리 자 응

옛날 어느 바다'가 마을에 주먹이 《쇠》처럼 세다고 하여 쇠주먹이라고 불리우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자기 마을에 기여 든 바다 도적들을 쫓아 내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원체 많이 밀려 들었던 바다 도적들은 쫓겨 가면서도 소와 돼지를 훔쳐 갔고 집들에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쇠주먹네 집도 놈들의 손에 불타 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놈들과 싸우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앞집도 놈들의 손에 불탔습니다. 앞집 할아버지는 이것저것 남아 있는 가구들을 질머지고 마을을 떠나면서 쇠주먹에게 말했습니다.

《네 신세가 가엽게 됐구나, 나와 함께 딴 고장에 가서 해오던 농사나 짓고 살자》.

그러나 쇠주먹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발로 차는 재간을 익히고 싶어요》.

《그건 또 갑자기 웬 생각이냐?》.

《전날 밤에 제 다리가 제 주먹만큼 셌다면 바다 도적놈들을 한 놈도 놓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응—》 할아버지는 허연 턱수염을 내리 쓸면서 쇠주먹을 오래'동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장한 생각이다. 바다 도적놈들을 우리 마을에 얼씬하지 못하게 해야 하지》.

《그러기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의 원쑤를 꼭 갚겠습니다》.

《음 옛날부터 전해 오는 말에 장수들은 모두 범산에 들어가 재간을 닦았다더구나 저 산 말이다》.

할아버지는 구름에 싸여 아물아물 보일락말락한 산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와 헤여진 쇠주먹은 그 길로 범산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쇠주먹은 아흔 아홉개나 되는 고개를 넘어서 범산 속의 험한 골짜기로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는 (재간이 늘지 않는다면 죽어도 이 산을 나가지 않을 테다!)하고 결심을 다지면서 발로 차기 련습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는가구요? 그것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몸이 곤한 것도, 아픈 것도 꾹 참고 밤낮으로 열심히 련습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몇 해가 지난 후에 그의 량 다리가 그의 주먹보다 몇 배 세고 날쌔게 되였습니다. 돌로 신발을 만들어 신은 그는 커다란 바위 열 개를 눈 깜짝할 사이에 데깍데깍 차서 모주리 빠개쳐 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쇠주먹은 《이만하면 바다 도적놈들이 제 아무리 기여 든다고 해도 모주리 잡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범산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휘익— 하는 소리가 머리 우에서 나더니 황소만한 범 한 마리가 쇠주먹 앞에 있는 너럭바위 우에 껑충 뛰여 와 앉았습니다.

《난 이 산의 왕, 백년 묵은 범이다. 몇 해 동안 자노라고 배가 출출했는데 잘 만났다》.

《무엇이 어째?!》,

쇠주먹은 날래게 달려 가 범의 턱을 힘껏 찼습니다. 단번에 범의 목아지를 뗄 생각이였습니다. 그러나 범도 이만저만 날래지 않았습니다. 쇠주먹의 발에 채울번하다가 훌쩍 뛰여 올랐습니다.

이때 공중에서 《데깍!》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범의 대가리가 조각이 나서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쇠주먹은 눈이 둥글해서 사방을 둘러 보았습니다. 바로 자기 뒤에 낯 모를 한 사나이가 밀돌갓을 쓰고 히죽히죽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대가 이 범을…》

하고 쇠주먹이 물었습니다. 그 사나이는 가벼이 고개를 끄덕이며 쇠주먹에게로 뛰여 와 손을 덥석 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깊은 산 속에 들어 오셨소? 방금 보니 차는 재간이 아주 훌륭하더군.》

《아닙니다. 별로 재간이 없습니다. 재간은 그대가 아주 비상합니다. 자 좀 앉아서…》.

쇠주먹은 그 사나이를 이끌고 너럭바위에 앉았습니다.

쇠주먹이 범산으로 들어 오게 된 이야기를 하자 그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이름은 밀돌갓이라 불러주오. 나는 본래 어부였소.》

하며 밀돌갓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밀돌갓도 역시 한밤 중에 자기 마을에 기여 든 바다 도적과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바다 도적들은 마을에 불지르고 곡식을 훔쳐 갔습니다.

밀돌갓은 바다 도적을 모주리 잡지 못한 것이 한이였습니다. 그는 그 때부터 머리로 받는 재간을 배우리라고 생각하면서 벌써 수년 전에 이 범산에 들어 와 열심으로 받기 련습을 했고 또 뛰여 오르기 련습도 하였습니다.

쇠주먹 앞에 범이 나타났을 때 밀돌갓은 그 옆의 나무 그늘에 있었는데 쇠주먹이 첫 번에 실패하여 위험하게 되자 그는 공중으로 떠 오른 범을 훌쩍 올려 뛰여서 받았던 것입니다.

바다 도적들이 마을에 얼씬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은 서로 손과 손을 굳게 쥐더니 왈칵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다짐하였습니다.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읍시다! 바다 도적을을 씨도 남기지 말고 쳐부셔서 마을 사람들의 원쑤를 갚읍시다!》.

이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범산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봉우리를 넘고 또 넘어 어느 한 아늑한 곳에 다달았을 때입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사람 아래'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은 서로 형제를 뭇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나이가 꼭 같았기 때문에 누가 형이 되며 누가 아우가 될 것인가를 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쇠주먹은 《놀라운 재간을 가진 그대를 형님으로 모시겠소이다.》

밀돌갓은 《주먹과 다리가 모두 날래고 센 그대가 형이 돼야 하오.》 이렇게 서로 사양하던 그들은 문득 맞은편 봉우리 우의 소나무가 굽었다 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소나무가 왜 저럴가?》

《참 이상하오, 가 봅시다.》

이들은 봉우리 우에 올라 갔습니다.

올라 가 보니 소나무 밑에서 한 거인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의 코'김에 소나무가 굽었다폈다 하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우리들의 벗이 될만한 분 같군요.》 하고 쇠주먹이는 기뻐 하였습니다.

밀돌갓은 가만히 그의 옆으로 가까이 가서 그를 흔들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그는 바위처럼 움직도 안했습니다.

쇠주먹과 함께 흔들어서야 거인은 잠에서 깨여 났습니다.

《웬 사람들이기에 잠을 깨우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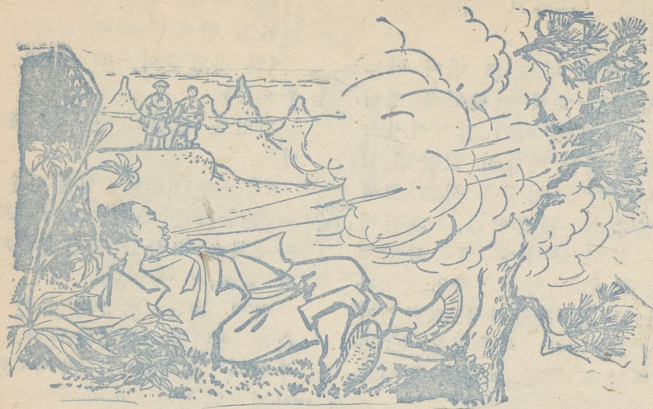
거인은 천천히 일어나 앉더니

《음—그대들이 밀돌신을 신고 밀돌갓을 쓴 걸 보니 모두 하나씩은 비상한 재간을 가진 것 같소.》

하며 험한 범산에 들어 오게된 래력을 물었습니다. 쇠주먹과 밀돌갓이 차례차례로 자기 래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듣고 난 거인은 《오늘이야 뜻 맞는 사람들을 만났군요.》 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웃는 소리가 골짜기를 쩡쩡 울리더니 가까운 골짜기 벼랑 우에 있던 바위돌이 데굴데굴 굴어 벼랑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인은 자기 래력을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그는 동해'가 마을 부자'집에서 종사리를 하였는데 어느 날 바다 도적 몇놈이 부자'집으로 남 몰래 왔습니다. 부자는 그놈들에게 누구의 집에 보물이 있고 누구의 집에 곡식이 많고 누구의 집엔 힘 센 젊은이가 있고…마을 형편을 모조리 밀고하는 것이였습니다.

이 말 소리를 문 밖에서 들은 거인은 더는 참을 수가 없

어서 도끼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 가 부자와 바다 도적을 모주리 까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범산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는 입으로 찬 기운을 내 뿜어 바다 도적들을 대번에 얼쿠어 죽였으면 얼마나 좋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허허… 이렇게 해서 찬 기운 불기 련습을 해 왔는데 벌써 십년이 더 지났지만 재간은 얼마 없소. 오래'동안 찬 기운을 내 불면 맥이 빠져서 더는 내 불 수가 없이 되오. 다시 힘을 모아야만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얼었던 것은 녹아서 달아나고 말거든. 엊그제도 숭냥이 한 놈을 그렇게 놓쳤단 말이요. 그대들에게 재간을 배와야겠소. 그리구 우리 셋이 힘을 합해서 싸와 봅시다.》

쇠주먹과 밀돌갓은 어찌나 기뻤던지 너울너울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 후 쇠주먹과 밀돌갓은 거인을 맏형으로 받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인의 의견을 따라 밀돌갓이 둘째 형이 되고 쇠주먹은 막내 동생이 되였습니다.

이들은 나란이 서서 범산을 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듯 그들은 범산을 빠져 나왔습니다. 바다의 출렁이는 물'결 소리가 은은히 들려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다다!》하고 쇠주먹이가 웨쳤습니다.

《빨리 가자! 그 동안 우리 사람들이 바다 도적놈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입었겠니?》

거인이 분이 넘쳐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바다 쪽으로 걸음을 더욱 다우쳤습니다.

해가 온 누리에 퍼졌을 뗍니다. 한 로인이 바쁜 걸음으로 걸어 왔습니다. 서로 엇바뀌면서 쳐다보던 쇠주먹이

《할아버지 아니시요? 전 쇠주먹입니다.》 하는 바람에

《쇠주먹?》하고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슴뻑거리며 쳐다보더니 그의 어깨를 꽉 쥐며 기뻐하였습니다.

《네가 정말 쇠주먹이구나, 몰라 보게 컸어.》

《할아버지 그간 고생인들 얼마나 하셨겠습니까?》.

《괜찮다.》

《할아버지 범산에서 만난 우리 형님들입니다》.

쇠주먹은 자기 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장 한바탕 싸울 일이 있다고 하면서 서둘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

할아버지는 바다'가 한 마을로 이사를 간 후 주먹산에서 숯을 구으며 살아 갔습니다. 이날 아침도 일찍 산으로 올라 갔는데 숯가마와 봉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사발'골에서 바다 도적들이 수 많이 자고 있었습니다.

사발'골이란 세 면이 벼랑으로 되여 있는 아늑한 골짜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혼자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가던 길이였습니다.

《바로 저 굵은 소나무 밑이 사발골이라네.》

하며 할아버지는 주먹산의 사발'골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 놓으십시요, 우리 형님들이 모두 장수들인 걸요》.

할아버지는 대견스럽게 세 형제를 쳐다 보더니 다시 마을을 향하여 걸음을 다우쳤습니다.

세 형제는 잠시 서로 의논을 하더니 곧장 사발'골이 내려다 보이는 등성이로 올라 갔습니다. 아직 많은 놈들은 자고 있었고 몇놈의 보초병이 무엇인가 마을에서 노략질해 온 것을 게걸스레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밀돌갓과 쇠주먹은 거인의 의견 대로 뒤를 따라 들어 갔습니다.

《에헴!》하고 거인이 큰 기침을 하자 세 면 벼랑 우에 있던 바위'돌들이 굴어 떨어져서 그 밑에 있던 놈들은 찍 소리도 못 내고 빼드러졌습니다.

《누구냐 서라!》—얼굴이 온통 수염 투성이인 수염쟁이가 큰 칼을 휘두르며 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수염쟁이 목아지는 밀돌갓에 받기워 사발'골 한가운데 틀을 차리고 앉아 있던 대장놈의 정수리에 데꺽하고 날아 가 떨어졌습니다. 흠칠 놀란 대장놈은 용수철처럼 펄쩍 뛰여 일어나며 고아댔습니다.

이렇게 되자 여기 저기 흩어져 자고 있던 바다 도적놈들이 모두 일어나 세 형제에게로 우구구 조여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형제는 바다 도적들이 한 곳으로 모여 들기를 바라고 있었답니다. 그래야 거인의 찬 기운이 단단히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인은 휘익—하고 찬 기운을 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선 놈들부터 말뚝처럼 땅에 꽁꽁 얼어 붙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대장놈은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찬 기운이 그놈에게까지 미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인의 힘은 더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내 쉬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녹기 전에 모주리 불어쳐라, 그리구 대장놈은 벼랑 우로 도망치고 있으니 놓치지 말라, 그놈은 활을 들고 있어.》 하고 웨쳤습니다.

《걱정 마시고 누워서 힘을 키우십시요.》 하며 쇠주먹과 밀돌갓은 얼어서 꿈지럭거리는 맨 뒤'놈들부터 까 부러치기 시작했습니다.

쇠주먹은 발과 주먹으로 차고 치고 밀돌갓은 머리로 받고 했는데 어찌나 빨랐던지 바람이 막 씽씽 일어났습니다.

바다 도적놈들을 거의 다 까 부셨을 때예요. 벼랑을 기여 오른 대장놈은 벼랑 우의 바위'돌에 몸을 숨기고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애응—》하고 화살 한 대가 쇠주먹의 왼쪽 어깨에 와 맞았습니다.

《애구 가렵다.》

하며 쇠주먹은 화살을 뽑아 쥐고 계속 차고 치고 하였습니다.

밀돌갓은 대장놈이 숨은 벼랑 밑으로 가더니 훌쩍 뛰여 올라 바위'돌을 힘껏 받았습니다. 바위'돌이 조각이 났습니다. 그 뒤에 숨었던 대장놈은 맥 없이 비칠거리더니 벼랑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남은 도적놈들을 몽땅 까부시고난 쇠주먹은 대장놈한테로 뛰여 갔습니다.

대장놈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꿇어 앉더니 쇠주먹과 밀돌갓을 쳐다보았습니다. 불이 펄펄 이는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던 그놈은 얼른 고개를 떨구고 싹싹 빌었습니다.

《천번 만번 잘못했나이다. 이번만 살려 주신다면 다시는 이 땅에 발'길을 들여 놓지 않겠나이다》.

《도적놈들의 간사한 꾀에 속을 줄 아느냐, 이 땅 사람들은 네놈들에게 피묻은 원한을 품고 있으니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쇠주먹은 대장놈 앞에 쥐고 있던 화살을 던지더니 발을 쳐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대장놈의 대가리는 주먹산 봉우리를 넘어 바다'물 속에 첨버덩 떨어졌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쇠주먹과 밀돌갓은 거인에게로 달려 갔습니다. 거인은 기운을 모으고 일어나 앉더니

《거마리 새끼들을 다 잡았구만…》

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몽땅… 한 놈도 놓치지 않았소이다》.

이들은 서로 꽉 껴 안고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할아버지에게서 련락을 받은 마을 사람들이 홍수처럼 사발'골로 밀려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 형제가 이미 도적놈들을 다쳐 없앤 것을 보고 그들을 목말을 태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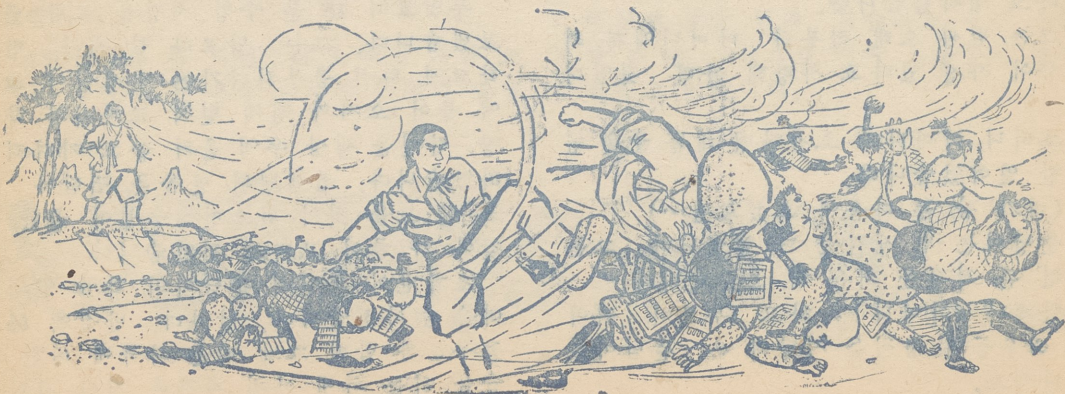
《고맙수다. 장수님들! 고맙수다. 장수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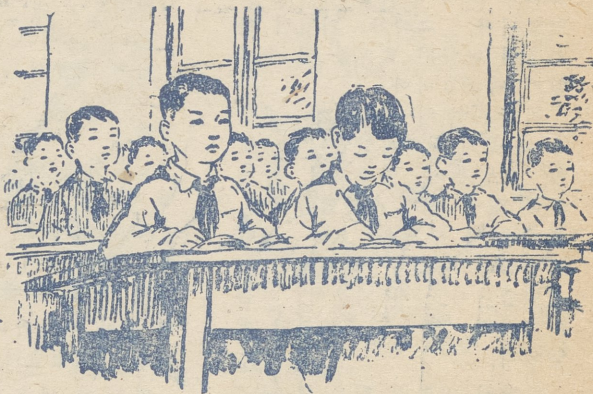
할아버지와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쇠주먹네 형제들은 큰 소리로 웨쳤습니다.

《저 바다를 지켜 어떤 원쑤놈도 얼씬 못하게 합시다. 이 땅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는 더욱 더 힘을 모읍시다!》.

《옳은 말이요》.

사람들의 웨침 소리는 온 주먹산을 뒤흔들며 바다 건너 씽씽 날아 갔습니다.

규률있게 학습한 보람

—평양시 봉지 중학교
3 학년 리 춘남 동무—

인민반 3 학년 때 일입니다.

산수 시험을 치르고 난 춘남이의 얼굴에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리 춘남 동무 5점》하고 선생님이 불러 주실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일은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리 춘남 동무 3 점》하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때 선생님의 얼굴은 그늘이져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눈이 둥글해서 웅성웅성 했습니다. 늘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 오던 춘남이였기 때문입니다. 춘남이는 가슴이 덜컥 했습니다. 정말 뜻밖이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시험지를 본 춘남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글쎄 두 문제나 틀리게 풀고도 자신 만만해 했던 것입니다.

《흥 우쭐하더니…》 분단 동무들은 춘남이에게 비웃음의 눈길을 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날 춘남이는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직장에서 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춘남이는 마침 잘 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벌써 오래 전부터 어머니에게 최우등이 자신 있다고 자랑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오신다면 대뜸 물을 건 뻔한 일이였습니다.

(내가 잠 든 다음에 오셨으면…)

춘남이는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는 이런 큰 걱정을 처음 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어머니!》하고 부르며 뛰여와 최우등의 성적을 자랑해 온 춘남이였으니까요.

《춘남 동무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었어요?》하시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려 왔습니다. 춘남이는 언뜻 자기의 곁에 놓인 책가방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가 약속한대로 새로 사다 주신 것이였습니다.

(옳아 그날 산수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 들을 생각보다 빨리 집에 돌아가서 이 책가방을 볼 생각을 하다나니 그 문제의 설명을 잘 못 들었을거야)

춘남이의 생각은 깊어 갔습니다.

그날 춘남이가 책가방 생각을 하는 사이에 선생님은 얼마나 귀중한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춘남이의 45 분은 보람 없이 훌쩍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춘남이는 처음 45 분이 귀중함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춘남이가 규률 있는 학습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무엇보다 45 분 수업 시간을 보람 있게 보냈습니다. 그는 남보다 한 시간 먼저 학교에 와서 공부하다가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 오시기 전에 벌써 교과서와 학습장, 연필을 책상 우에 올려 놓고 기다리군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잘 모를 것이 있으면 수업이 끝난 후 찾아 가 물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초급반이 되면서 춘남이의 학습 열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날마다 반실에 나가 동무들과 함께 그날 배운 과목에 대한 학습을 하는 외에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을 갈라서 일과표를 세우고 꼭꼭 그대로 해 나갔습니다.

반실에서 2 시간 동안 학습하고 춘남이는 다시 학교에 나옵니다. 춘남이네 집은 학교에서 가깝기 때문이지요. 그는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로 찾아 갑니다. 여기서 춘남이는 한 시간 반 동안 회상기 책을 읽으면서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과 아동단원들의 모범을 배우며 본 받습니다.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싸운 항일 투사들의 정신은 얼마나 높고 아름다운가!) 그는 회상기의 어느 제목을 읽을 때나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 조국의 보다 휘황한 래일을 머리 속에 그려 보군 합니다. 자기가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준비하는 소년단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춘남이는 무엇인가 자꾸만 알고 싶고 자꾸만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춘남이는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실험 실습으로 배운 지식을 쓸모있게 다져 나갑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리에서 《전기》를 배운 춘남이가 며칠을 걸려 전기종을 만들었습니다. 춘남이는 스위치를 넣었습니다.

《잉. 왜 짜르릉 소리가 난다던 게 안나?》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 일남이가 곁에 앉아 기다리다가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뿌지직하며 불이 번쩍하더니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남이네 유치원 꼬마 동무들까지 있는 데서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춤남이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물리 크르쇼크원인 석 용수 동무를 찾아 갔습니다.

《코이루가 타 버렸구나.》 자연 과학 도서를 많이 읽는 용수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춤남이는 그제야 코이루를 적게 감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춤남이는 아직 자기는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학습장을 하나 더 만들고 《흥미있는 물리학》, 《전기 지식 독본》 등 자연 과학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듯 춤남이는 20 권의 자연 과학 책들을 읽고 2 개의 학습장에 필요한 원리와 정의 같은 것을 뽑아 적어 넣었습니다. 춤남이는 언제나 이 2 개의 학습장과 학교에서 배운 학습장을 꺼내 놓고 실험 실습을 합니다. 춤남이에겐 또 다른 3 개의 학습장이 있는데 이것은 200 권 가까이의 문학 책들을 읽고 느낀 점과 모를 어휘를 적어 넣은 것입니다. 춤남이는 늘 책을 읽을 때마다 노트에 새로운 어휘를 적어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다 준 사전을 꺼내 놓고 설명을 적어 넣습니다.

이리하여 춤남이는 시도 작문도 아주 훌륭하게 지을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일과표대로 어김 없이 학습해 나가면서 날마다 일기를 씁니다.

춤남이는 길을 가면서도 새로운 단어나 물리, 화학, 수학 공식 같은 것을 외우는데 습관이 되였습니다.

그는 같은 반의 용수 동무와 함께 가끔 물리 화학 실험도 해 보군 합니다.

지난 번에도 희류산 용액과 동판, 연판을 가지고 전류를 얻는 실험을 했는데 이때 불이 번쩍 켜지는 것을 보고 춤남이의 동생은 《야 인젠 멋있게 하는구나.》하고 손'벽까지 치며 좋아했습니다. 춤남이는 이렇게 규률 있게 학습하고 실험 실습을 잘 해 온 보람으로 계속 최우등의 영예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학원 언어 문화 연구 실장 최 완모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이웃 어른들을 언제나 존경하고 례절 있게 대하는 것은 우리 소년단원들이 갖추어야 할 아름다운 품성입니다.

그런데 웃 어른들을 존경하고 친절히 모시는 데서 중요한 것은 《높이는 말》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은 세계의 수천 개의 언어 가운데서도 《높이는 말》이 아주 발달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 어른들이나 손우 사람들 앞에서 버릇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례의 도덕이 바르지 못한 학생으로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 말을 어지럽히는 결과로도 됩니다.

《오빠야, 빨리 가자!》

《엄마! 점심 잡샀나?》

《애 순길아, 난 좀 늦어 간다고 선생한테 말해다구 응.》

학생 동무들은 이런 말을 한 일이 없습니까?

《오빠》나 《언니》가 자기보다 겨우 한두살 우인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빠》, 《언니》라고 하면서 《—야》《오빠야, 언니야》라고 부르는 것은 잘 된 말이 아닙니다.

《오빠, 빨리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례절 바른 소년답기도 하며 귀엽게 들리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를 보고

《엄마, 점심 잡샀나?》 하는 것은 더욱 안 된 말입니다.

《먹다》 라는 말을 높이는 말로 《잡수시다》 라고 한다는 것을 안 것은 좋았지만 이 말을 바로 쓰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북한 말로 되였습니다.

《잡수시다》 라는 《높이는 말》을 썼다면 그 말의 끝을 맺는 말도 《…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니까?》 혹은 《…셨어요?》 라고 해야 바른 말로 됩니다.

어머니를 보고 《엄마, 점심 잡샀나?》 라고 하는 것은 절반은 높여 말하고 절반은 낮춰 말한 것으로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점심 잡수셨어요?》 또는 《…잡수셨습니까?》 라고 하든가 《어머니 진지 받으셨어요?》 또는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례절 바른 말씨입니다.

웃어른들에게 대해서 《먹는다》 라고 하지 않고 《잡수신다》라고 말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집에) 있다》, 《잔다》, 《말한다》, 《(책을) 준다》와 같은 말도 각각 《(집에) 계신다》, 《주무신다》, 《말씀하신다》, 《(책을) 드린다》 라고 해야 합니다.

《애 순길아, 난 좀 늦어 간다고 선생한테 말해다구》 하는 말과

《애 순길아, 난 좀 늦어 간다고 선생님께 말씀 드려다구》 라는 말에서 어느 쪽이 바른 말이겠습니까? 물론 뒤의 학생이 한 말이 《높이는 말》을 바로 쓴 말입니다.

언젠가 인민 학교 4 학년 학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빠스 안에서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도 늘 누워서 신문을 읽으시면서 내가 누워 공부하면 야단하신단다》.

이 학생의 말에서 어느 말이 잘못 되였겠습니까?

《…저도 늘 누워서…》에서 《저》라는 말을 봅시다.

《저》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한 가지 뜻은 웃어른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말할 때 《저도 압니다.》《저는 열 두 살입니다.》와 같이 쓰며 또 한 가지 뜻은 동무들 끼리 말할 때에 《넌 저도 모르면서 그런 문제를 내니?》와 같이 상대편을 가리켜 《너 자신》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웃 어른께 대해서는 그 분을 《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학생의 말에서 《저도》 라는 말은 잘못 된 말입니다.

《애들아! 정거장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학생 동무들은 길'가에서 로인들이나 웃어른들께서 이런 질문을 받는 일이 자주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물론 《난 몰라요.》 라고 불친절하게 대답할 소년단원이야 없겠지만.

《나와 같이 갑시다. 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 학생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웃 어른들 앞에서는 자기를 가리킬 때《나》라고 하지 않고 《저》라고 즉 《제가 모셔다 드리지요. 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례절에 맞는 말입니다.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께 대해서 겸손성 없는 말을 함부로 쓰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 애! 지도원 선생이 온다.》

초급반 학생들 가운데는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애 애, 지도원 선생님이 오신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해야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그대로 깃든 말로 됩니다.

웃 어른들께 반말을 쓰거나 버릇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소년단원의 행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공부 잘 하고 운동과 노래를 잘 하면 되지 말 같은 거야 아무렇게 해도 알아나 들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되는 대로 말하고 버릇 없이 말하는 최우등생, 모범 학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새 나라의 꽃봉오리인 우리 소년단원들은 모두다 아름다운 우리 말을 례절에 맞게 훌륭히 다듬어 씁시다.

동시

귀중한 책

사람마다 소중히 간직하는 책
배우고는 실천하는 귀중한 책
나에게도 있습니다.
읽을수록 힘 솟는 귀중한 책

어려운 일 앞을 막을 때
한번 다시 읽으면 부쩍부쩍 힘이 솟아
태산도 밀고 나가게하는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즐겁고 기쁜 일 생길 때마다
나는 그분들을 생각합니다.
찬바람 맞받아 밀림을 헤치고
항일 투사들의 힘찬 모습을

나는 오늘도 읽습니다.
간고한 나날 몸바쳐 싸우신
그분들의 붉은 정신
가슴에 스며 들게

함경남도 영흥군 영흥 중학교
2학년 엄 길선

재봉기는 수 놓아요

운전벌 70 리를 한 품에 안고
황금 날가리처럼 솟은 칠학산
그 기슭 새로 지은 문화 주택에서
어머니는 돌려요 재봉기를 돌려요.

새 집 드는 기쁜 날
새로 사 온 재봉기
재봉기는 우리 행복 노래하면서
곱게곱게 누벼요, 행복을 수 놓아요.

별빛 새는 거을영 초막에서
누더누더 베옷 깁던 우리 어머니
아 고마와요 로동당은
오늘은 재봉기로 비단을 누벼요.

사라락 사라락 재봉기는 돌고
앞 가슴에 번쩍 천리마 휘장 단
어머니의 얼굴 가득
꽃웃음 폈어요, 행복이 물'결쳐요.

평북 운전군 운하 중학교
2학년 최 기원

열을 내는 눈

물은 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되며 식으면 물'방울로 된다. 그 물'방울은 더 식어 령도 이하에서는 얼음 덩어리가 된다. 이처럼 물이 식는다는 것은 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열을 밖으로 내 놓는다는 것을 말한다.

눈 나리는 날이 다른 날보다 푸근한 것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얼면서 가지고 있던 열을 밖으로 내 보내기 때문인 것이다.

소리를 먹는 눈

우리가 말한 소리는 공기의 파도를 일쿠며 밀려 가 상대방의 귀에 닿게 된다.

소리를 실은 공기의 파도는 좁은 구멍 속으로 들어 가면 나오지 못하는 성질이 있다.

그런데 눈송이에는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다. 때문에 눈 내리는 날 소리를 치면 눈송이의 작은 구멍들은 소리를 잡아 먹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 내리는 날 소리는 멀리 가지 못한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철

모든 물체는 더우면 늘어나고 차지면 줄어 드는 성질이 있다. 만약 전기'줄이나 전화선을 빳빳하게 늘인다면 날씨가 추워지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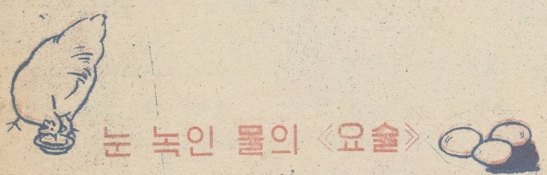
100m 의 전화선은 온도 1 도씩 높아지거나 낮아짐에 따라 약 1.5mm씩 늘어나거나 줄어 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을 너무 빳빳하게 늘이면 추운 겨울에는 절로 끊어지는 것이다.

빨래 잘 되는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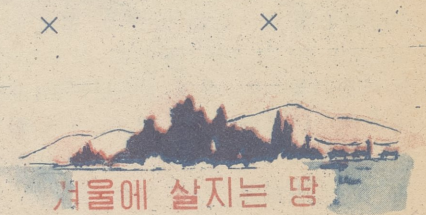
눈을 녹여 빨래를 하면 때가 잘 진다. 그것은 증발한 수증기가 얼어서 눈으로 되여 떨어졌기 때문에 천연적인 증류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눈 속에는 공기 중의 질소, 산소, 탄산까스와 적은 량의 먼지 밖에 포함되여 있지 않다. 비누는 이런 물에 잘 녹는 것이다. 그러나 샘물 강물 등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 등의 여러 가지가 포함되여 있기 때문에 비누는 이런 물에 잘 녹지 않으며 거품이 잘 일지 않는 것이다.

× ×

눈 녹인 물의 《요술》

눈을 녹여 동물과 식물이 빨리 자라게 하는데 쓴다면 동무들은 곧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해낸 것이다.

눈 녹인 물을 먹인 닭은 보통 물을 먹인 닭보다 알을 배 이상 많이 낳고 알도 퍽 크다. 또한 돼지에게 눈 녹인 물을 먹여도 보통 물을 먹고 자란 돼지보다 체중이 30 분의 2나 더 컸진다고 한다. 특히 눈 녹인 물을 먹인 가축들은 새끼를 낳아도 암컷을 많이 낳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온실에 심은 호박이나 무우 밭에 눈 녹인 물로 관수하면 수확을 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눈 녹인 물에는 보통 물에 들어 있는 수소와 성질은 같으면서도 무게가 서로 다른 중수소라는 것이 들어 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중소는 동식물의 세포의 작용을 보통 때보다 빨리하게 하는 것이다.

겨울에 살지는 땅

눈은 겨울에 땅을 살지운다. 그것은 눈에는 산소, 질소, 류산, 류화갈슘, 탄산까스 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 지방에 내리는 눈에는 먼지와 암모니야 등이 있으며 해안 지방에 내리는 눈에는 소금도 약간 들어 있을 때도 있다.

이처럼 눈속에 들어 있는 질소, 산소, 암모니야 등이 땅을 살지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면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다.

눈은 땅을 비옥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열이 눈을 통해 잘 나가지 못하게 하여 땅이 얼지 않도록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심은 보리는 얼어 죽지 않는 것이다.

왜 바다'물은 0 도가 되여도 얼지 않는가?

모든 물질은 작은 알맹이(분자)들로 되여 있다. 물은 산소와 수소의 작은 알맹이들로 되여 있다. 물이 언다는 것은 물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알맹이들의 거리가 가까와지고 그 알맹이들이 이리저리 마음 대로 뛰여 다니는 힘이 약해지는 것을 말한다.

순수한 물은 0 도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다'물은 0 도가 되여도 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바다'물에는 소금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소금 알맹이들은 물 알맹이들 사이에 끼여 들어 물 알맹이들이 얼려고 서로 가까와지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물은 0 도가 되여도 얼지 않는다.

새 싹들이여 자라라!

—잡지 《소년단》에 실린 어린 독자들의 동요 동시를 읽고—

리 원우

나는 요즈음 잡지 《소년단》1961 년 11월 호부터 1962년 10월 호까지 읽어 보았는데 여기엔 소년단원들의 동요, 동시들이 많이 실려 있다.

함북, 함남, 자강도, 량강도, 평남도, 평북도, 강원도, 평양을 비롯한 큰 도시와 농촌 어촌 등 방방곡곡에 있는 소년단원들이 써 보낸 작품들이다.

나는 어린 소년단원들이 쓴 문예 작품을 싣는 《독자란》을 묘목장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왜냐 하면 그들의 글은 큰 나무로 키워야 할 싹—묘목들이기 때문이다.

문학의 어린 싹들이여 로동당의 태양 아래서 어서 무럭무럭 커라!

1 년 동안에 발표된 소년단원들의 동요 동시들에는 벅찬 천리마 시대가 반영되고 있다.

함북 회령군 학포 중학교 단 박정숙의 동시 《굴진공 아버지》와 함북 길주 중학교 2 학년 리 승일의 동시 《탈곡기는 노래해요》는 참 좋은 시다.

이 동요 동시들은 새 생활을 창조하는 로동에 대한 존경심과 동경심을 노래하려고 했으며 그와 함께 사회주의 제도를 찬양하고 있다. 그런데 허공 떠서 그와 같은 내용을 노래한 것이 아니고 실지 자기들의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소박하고 솔직한 감정으로 노래한 데 우점이 있다.

동시 《굴진공 아버지》에서는 탄부를 자기 아버지로 모신 소년단원의 심정을 통하여 1,500만 톤 석탄 고지 점령에 나선 로동자들을 소년단원의 말로 씩씩하게 노래하고 있다. 머리엔 안전모 꾹 눌러 쓰고 허리엔 혁트라 굳게 차고 석탄 캐려 가는 씩씩한 아버지 모습이 안겨 온다.

> 아버지의 자랑찬 일터는요
> 우리들이 공부하는 학교 밑이야요.
> 착암기 틀어 잡고
> 뚜루루 석탄벽을 무닐 때면
>
> 공부하는 내 모습도 그려 본대요.
> 노래하는 내 목소리 새겨 듣는대요.
> 검은 보배 캐내는 우리 아버지
> 1,500만 톤 석탄 고지 문제 없대요.

다듬어야 될 구절들과 좀 서툴러 보이는 데도 있다.

그러나 이 동시는 탄부가 석탄벽을 문허치며 돌격해 나가는 식으로 독자들의 마음에 돌격해 들어 온다. 아름다운 구절을 다듬느라고 그만 우리 시대의 정신을 놓친 것보다 이 동시는 솔직해서 좋다.

이 밖에 자강도 화평군 화중 중학교 3 학년 오 병철 동무가 쓴 동시 《새로 선 발전소》, 《기관사가 될래요》, 함흥시 성동 중학교 한 용걸이 쓴 《우리 학교 공작실》, 무산군 성천 중학교 3 학년 김 정수가 쓴 《원족 가는 날》 창성군 약수 중학교 김 수옥이 쓴 동시 《피아노》 등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

> 문필봉에 아침 해 솟아 오를 때나
> 삼봉산에 저녁 노을 비칠 때에나
> 우리는 언제나 노래합니다.

동시 《피아노》에서 서정적 주인공(시를 쓰는 사람의 감정)은 자기 기쁨을 이렇게 노래 부르기 시작한다.

> 원수님이 주신 피아노 반주에 맞춰
> 황금산의 우리 자랑 노래합니다.
> 행복한 우리 생활 노래합니다.

월정 중학교 김 명옥 동무는 동시 《림진강 야영》에서 야영을 통한 학생들의 행복한 감정을 노래했다. 이 시는 공화국의 행복을 노래하다가 남녘 땅 동무들을 그리며 그들과 만나 행복을 나눌 날을 위해 새 결의 다지게 하는 애국심을 격발시키는 시다.

> 우리는 앞날의 바다의 용사
> 림진강에 둥둥 배 띄워 타고요.
> 행복의 노래 부르며
> 삼승대로 갈 때면
> 헐벗고 굶주리는
> 남녘 땅의 동무들과
> 우리 행복 나누고 싶어
> 손저어 불러요.
>
> 그 날 위해
> 우리 모두 열심히 배워
> 모범 분단 꾸리자고
> 새 결의 다지지요.

이 외에도 금년 5월 호에 실린 함남도 인흥군 련동 중학교 3 학년 김 재룡 동무의 《바다는 부른다》, 평북 염주군 하석 중학교 2 학년 리 승애 동무의 《바다의 아침》등은 모두 어린 독자들을 흥분시키는 좋은 작품들이라고 본다. 이 시들은 바다의 용사로 되려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들을 바다에로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시들에서 결함을 찾는다면 바다에 대한 날개치는 정신이 좀더 어촌 로동자들 즉 자기 부모들의 생활에 들어 가서 불렀으면 하는 욕심이 있다. 그리고 부분적인 시들에는 마지막 련에 《나는 무엇이 될래요》하는 식으로 토론 뒤끝의 맹세를 다지듯 쓰는 경향이 보이는데 시마다 다 똑 같이 이런 맹세를 붙인다면 맹세문이 되지 않겠는가.

맹세를 다지는 그 정신은 좋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정신을 표현하여야 한다.

《소년단》에 실린 많은 독자들의 시작품들과 그리고 작문들엔 우리 시대 정신이 있고 당과 수령에 대한 감사의 정이 있고, 조국 통일에 대한 지향이 있고, 혁명 선렬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비교적 솜씨 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 작품들에는 시정해야 될 다음과 같은 결함들이 있다.

그것은 내용과 소재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는데 그 내용과 소재를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 가지고 쓰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느낀 것이 부족한 시들이다.

같은 내용과 같은 현상을 보고도 즉 소재는 같지만 그것을 보고 느낀 감정은 가지각색이다.

> 누가 더 새롭고 귀중한 것을 느끼는가
> 누가 더 씩씩하게 느끼는가.
> 누가 더 아름답게 느끼는가.
> 누가 새롭고 씩씩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 것을 창조하여 독자들에게 주는가.

용해공은 콕쓰와 광석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붉은 쇠'물을 창조 한다.

글을 쓰는 사람은 소재를 가지고 사회주의적 애국심과 공산주의 정신을 창조해야 한다.

좋은 소재를 잡았는데 그것을 소재 대로 버려 놓은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로동자의 아들 딸된 긍지감과 미제 침략자와 지주 자본가를 증오하는 정신이 물'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소년단원들의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진실하게 노래하는 작품들이 없는 것이다. 동무들은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내용으로 한 작문 동요, 동시도 더 많이 써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생활은 오늘도 행복하지만 래일은 보다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며 문학 써클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새 싹들이여 자라라!

속담

△개꾸리도 움츠려야 뛰여 간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준비할 겨를이 있어야 한다는 말)
△단단한 땅에 물이 고인다.
(토대가 든든해야 일이 제대로 된다는 말)

재미있는 운동 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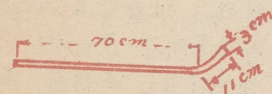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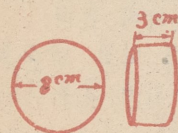
《썰매 혹케이》 놀음

겨울에 얼음 또는 눈 우에서 하는 썰매 혹케이 놀음은 우리들의 신체를 단련하는 데 좋은 재미 있는 운동 유희다.

(1) 필요한 준비

㉠ 썰매 찍개 한 개 (길이 70 cm)

㉡ 혹케이 채—70 cm 길이의 나무 막대기 끝에 혹케이 공을 치게 만든다. 또는 끝이 꾸부러진 나무를 마련한다.

(그림)

㉢ 혹케이 공—그림과 같이 두터이 3 cm 정도의 판자로써 8 cm의 직경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빨간 색을 칠한다.

(그림)

㉣ 얼음 또는 눈판에 일정한 거리(15~20 m 정도)를 두고 평행으로 선을 그어 놓고 각각 그 중앙에 3 m 너비의 문을 만든다. (문의 표식은 기'발을 꽂는다.)

(2) 유희 조직

㉠ 5 명 또는 10 명씩(그 이상도 좋다.) 두 조로 나누어 썰매를 타고 왼손에는 찍개, 오른손에는 혹케이 채를 쥐고 량 문 앞에 정렬한다.

㉡ 한 ㄷ은 문직이를 담당한다.

㉢ 혹케이 공을 유희장 중앙에 둔다.

(3) 노는 방법

심판의 신호에 의하여 량편 유희자들은 중앙을 향하여 찍개 한 개로써 썰매의 량쪽 또는 뒤의 얼음판(눈판)을 찍으면서 전진하여 중앙에 놓인 혹케이 공을 혹케이 채로 밀고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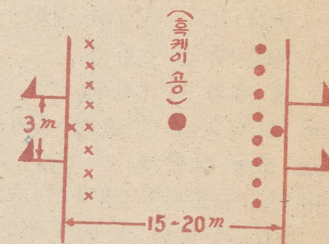
두 편은 서로 혹케이 공을 빼앗아 자기 편에 밀어 련락하며 상대편 문에 접근하여 문직이의 장애를 뚫고 혹케이 공을 문에 밀어 넣는다.

이렇게 하여 혹케이 공을 많이 문에 넣는 편이 승리한다.

(4) 주의할 점과 지켜야 할 점

㉠ 혹케이 공을 채로 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밀어야 한다.

㉡ 찍개로 혹케이 공을 찍어서 련락하지 않는다.

㉢ 왼손에 쥔 찍개로 썰매의 량쪽과 뒤의 얼음판 또는 눈판을 찍고 나갈 때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혹케이 공 밀고 달리기 놀음》

(1) 준비할 것

㉠ 전체 유희자들이 썰매 한 개, 찍개(70 cm 길이) 한 개와 혹케이 채(70 cm 길이) 한 개.

㉡ 썰매 혹케이 공 두 개, 두터이 3 cm 직경 8 cm의 동그란 판자)

㉢ 얼음판에 20~30 m 거리에 평행선을 그어 놓고 한 쪽 선에 두 개의 기'발을 5 m 간격으로 꽂아 둔다.

(2) 노는 방법

㉠ 전체 유희자들을 두 조로 나눈다.

㉡ 출발선에 두 조의 선두가 나란히 준비한다.

㉢ 심판의 신호에 의하여 선두 유희자가 한쪽 손에 쥔 찍개로 얼음판을 썰매의 좌, 우, 뒤로 찍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오른손에 쥔 혹케이 채로 혹케이 공을 밀고(가깝게 또는 멀리 자유로) 가서 기'발을 돌아 출발선에 온다.

㉣ 출발선에 돌아 오면 혹케이 공을 다음 유희자가 받아서 계속한다.

㉤ 먼저 끝난 조가 승리한다.

잡지 《소년단》과 함께 1년

나는 《소년단》 잡지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것은 《소년단》이 우리의 친한 벗이기 때문이지요.

나는 이 한 해도 《소년단》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항상 제일 먼저 읽은 것은 항일 유격대 아저씨들을 도와 용감히 싸운 아동단원들의 이야기와 옛날 지주 자본가놈들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어떻게 착취하였는가 하는 글들이였습니다. 그리고 6 개 고지 점령을 위해 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의 투쟁과 이를 돕는 소년단원들의 이야기, 집단과 동무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친 모범 분단 동무들과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동무들의 이야기, 실험, 실습으로 배운 지식을 익혀 모두가 우등, 최우등생이 된 이야기 등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특히 혁명 투사 선생님들이 쓰신 아동단원들의 투쟁 이야기는 아동단의 모범을 본받아 나가는 나에게 많은 것을 배워 주었습니다.

나는 4 호에서 혁명 투사 황 순희 선생님이 쓰신 《피를 나눈 동무들》을 읽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곤난에 처하였을 때 아동단원 금옥이는 자기의 피를 먹이면서까지 동무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자기만 학습과 소년단 사업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분단에서 뒤떨어진 동무들을 도와 주는 데 앞장 서지 못하였습니다.

아동단원인 금옥이처럼 동무를 훌륭히 돕는 소년단원이 될 것을 다짐한 나는 그 날 밤부터 학습에서 뒤떨어진 고동무를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그와 함께 《소년단》 잡지를 펴 들고 아동단원들의 투쟁 이야기와 최우등생들의 훌륭한 학습 경험을 읽기도 하였고 현상 문제와 재미 있는 문제 풀이, 《실험해 보세요》 등도 읽고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고 동무의 학습은 차츰 나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몇 달 지나 고 동무는 우등생으로 되였습니다.

나는 《소년단》을 재미나게 읽기만 하는 데 끄치지 않았습니다.

지주, 자본가 놈들을 폭로하는 글을 읽을 때마다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나는 그 전까지만 하여도 지주 자본가 놈들이란 뚱뚱보고 거저 로동자, 농민들을 소나 말처럼 때리며 일만 시키는 놈들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변'벌의 옛이야기》를 읽고 지주놈은 농민들을 소나 말처럼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농민들을 위하는척 하면서 뒤로는 여우처럼 교활하게 자기의 검은 배'속을 채운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주놈의 교활성을 더 깊이 알자 지주 자본가놈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나는 《소년단》을 읽으며 배운 지식을 실험, 실습으로 쓸모 있게 익히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반 동무들과 나는 저녁이면 반실에 모여 그 날 배운 과목을 학습하고는 잡지를 펼쳐 놓고 과학 환상 소설, 《이것을 아십니까》도 읽으며 《어린 기술자》, 《실험해 보세요》 등에 있는 것을 실지 실험도 해보며 만들어도 보았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나의 솜씨는 매일 늘어만 갔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반의 김 경호 동무가 만든 잠망경은 단에서 열린 《재간 있는 솜씨 전람회》에서 높은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몸을 튼튼히 단련하기 위하여 일과표 대로 아침 체조를 할 때면 잡지에서 읽은 대로 달리기 운동도 하며 랭수 마찰, 호흡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년단》은 올해에도 우리의 참다운 벗으로 되였습니다.

나는 래년에도 《소년단》을 더 열심히 읽고 아동단원들의 투쟁을 본 받아 그들처럼 집단과 동무를 위해 훌륭한 일을 많이 할 것을 다짐합니다.

평양시 교원 대학 부속 중학교
인민반 4 학년 정 백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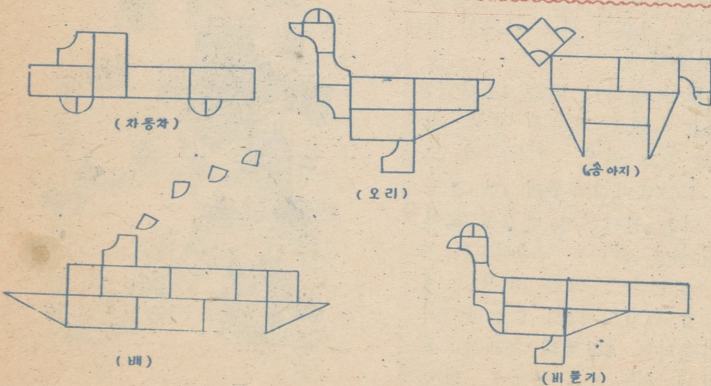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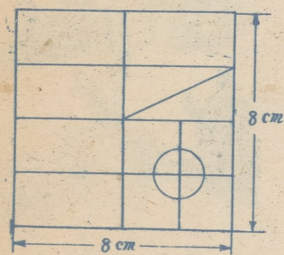
짜고 놀기

조 화석

누구든지 재미 있게 만들어 놀 수 있는 종이 짜기를 다음에 소개한다.

두꺼운 마분지나 또는 두꺼운 종이에 다음 그림과 같이 그리고 이것을 가위나 칼로 반듯하게 베여 낸다.

전부 15 쪽이된다.

이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맞추어 보면 약 50 개의 재미 있는 물건들이 된다.

8호 현상 문제 해답

(그림 2) 저울 량쪽에 컵을 하나씩 더 놓아도 무게는 같다. 따라서 물 주전자의 무게는 2개 컵과 사발의 무게를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 그림 3에서 사발 3개는 4개의 컵과 2개의 사발을 합한 무게와 같다는 것을 알수 있다. 여기서 사발 2개씩을 량쪽에서 떼 내면 접시 1개는 컵 4개의 무게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를 다시 보라. 여기서 사발 1개 대신에 컵 4개와 바꾸어 놓으면 다섯개의 컵은 병 하나의 무게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병는 컵보다 5배나 더 무겁다.

8 호 현상 문제 당선자

함북 경성군 독연 중학교 서 광욱
함남 함주군 주서 중학교 문 창식
한 혁규 송 진석
평북 선천군 효자 중학교 리 영근
평남 온천군 보림 중학교 박 명탄
황남 장연군 선정 중학교 김 현자
개성 지구 장풍군 렘정 인민 학교 고 영근
량강도 운흥군 령하 중학교 전 영숙
자강도 강계시 강계 중학교 리 미훈

9 호 현상 문제 해답

첫 저울 질—사탕가루를 4.5 kg 씩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놓는다. (이것은 추 없이도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저울 질—4.5 kg씩 나눈 것을 다시 절반으로 2.25 kg씩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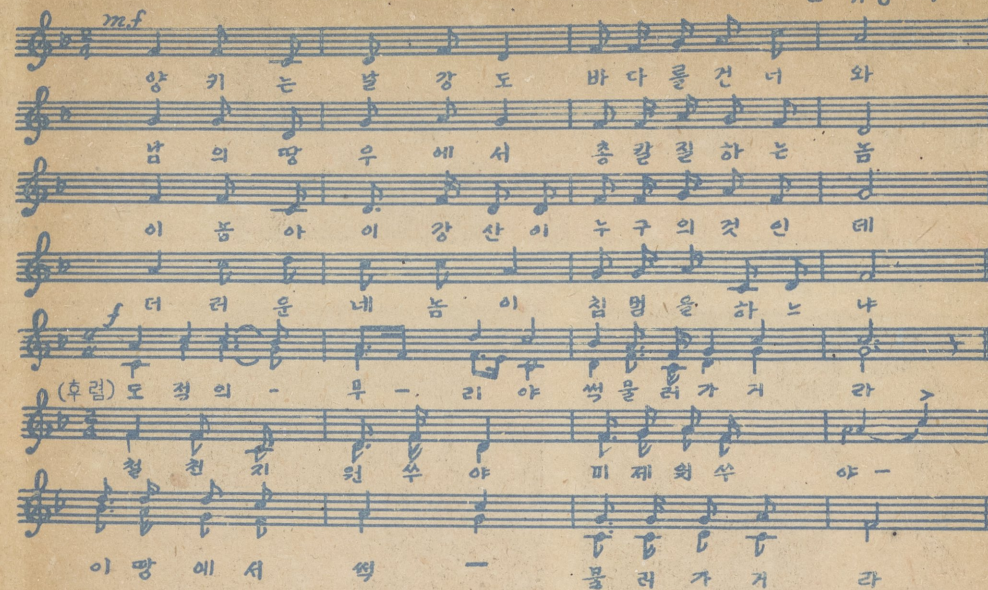
세 번째 저울 질—이렇게 얻어진 부분에서 250 g 를 달아 낸다. (추를 쓴다.) 그러면 2 kg가 남는다.

9 호 현상 문제 당선자

평북도 염주군 련산 중학교 박 원근
평남도 온천군 서화 중학교 송 창현
림 호근, 장 세환, 강 명국, 박 정택, 방 찬호, 김 정화, 정 윤호, 김 은암, 차 순곤, 리 광석,
함남도 신흥군 발전 중학교 김 덕영
황남도 배천군 봉양 중학교 송 형선

현상 문제

9를 9개 가지고 99를 만들어 보세요(가, 감, 승, 제에 대한 부호를 마음대로 리용할 수 있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소년단》1962년 제 12 호 (총 158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ㄱ—230661
값 25 전 150, 000부 발행

2. 미제는 승냥이 굶주린 짐승들
두 발로 다니며 살과 피 먹는다.
이놈아 받아라 인민의 증오를
몽둥이 벼락에 가루가 되리라
(후렴)

3. 삼천리 한강토 남과북 있으랴
모두다 복되게 살아갈 세월에
아버지 어머니 형님과 누나를
십여년 긴세월 갈라논 네놈들
(후렴)

4. 양키는 날강도 사람만 보면은
때리고 짓밟고 죽이고 빼았아
인간의 생지옥 만들어 내는놈
온세계 인류의 흉악한 원쑤다
(후렴)

그림 박 춘 삼

① 대구—얘야! 바다 손님이 타고 온 배가 어디 있니?
톱고기—모르겠는걸, 배를 훔쳐간 놈을 대주면 내 주둥이 톱으로 베여 버리련다 공머리—자네보다 먼저 내 주둥이로 찔러 놓겠네.

② 대구—성게야! 배를 못봤나?
성게—자네두 못본걸 밤송이 같은 나야 어떻게 알겠나.
대구—넌?
해삼—내장이 터져도 다시 살아 나는 재간은 있어도 그 건 모르겠어!

③ 대구—여기선 왜 떠드나?
새우—자네가 찾아 주려는 배는 저기 있네! 그놈의 좁때개비가 훔쳤지!
대구—뭐?

④ 대구—바다 손님들! 배를 찾았소. 좁따개비가 훔쳤지요.
철이—뭐? 좁따개비가?

⑤ 철이—난 이걸 바위로 알았다니?
용이—한놈도 놓아 주지 말라구. 이놈의 좁따개비는 하등에 필요 없는 것들이야! 배나 목재를 마수어 놓는 악질이야!

⑥ 고기들—안녕히!
철리, 용이—다시 만날 때 까지 안녕히.

⑦ 용이—다음 해에는 더 훌륭한 배를 만들어 바다 속의 비밀을 탐지 하자!
철이—난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웠어.

—끝—